

寡占經濟와 케인즈經濟學

林 元 澤*

〈目 次〉

- I. 「獨占資本主義」의 理論
- II. 「不完全競爭」·「獨占的 競爭」
- III. 寡占經濟
- IV. 寡占經濟와 케인즈經濟學

I. 「獨占資本主義」의 理論

1.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 - W < \frac{P}{A} \dots P \dots W' - G'$ 은 外部로부터의 貸付資本 $G - G'$ 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擴大될 수 있다. 왜냐하면 生産物 W' 을 販賣해서 獲得한 貨幣資本 G' 가운데서 資本損耗分乃至는 再投資用貨幣資本인 G 를 除外한 剩餘價値 $g (= G' - G)$ 가운데서 資本家가 直接 消費하는 部分을 除外한 殘餘 즉, 資本家貯蓄이 追加資本化되어 즉, 「剩餘價値의 資本으로의 轉化」를 통해서 擴大再生産이 이루어지게끔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資本의 蓄積過程」이라고 말한다.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 - W < \frac{P}{A} \dots P \dots W' - G'$ 은 利潤極大化의 法則에 의해서 必然적으로 擴大再生産乃至는 資本蓄積을 하게끔 運命지워져 있으며, 그 밖에 또 其他 個別資本과 의 競爭도 必然적으로 모든 個別資本으로 하여금 擴大再生産乃至 資本蓄積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끔 만들고 있다. 왜냐하면 擴大再生産乃至 資本蓄積을 통해서만 技術革新이 成就될 수 있으며 따라서 또 極小平均費用引下·品質向上(그 企業의 生産物의 需要曲線을 右上方으로 移動하게 만드는 것)이 達成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2. Marx는 上記한 바와 같은 自然發生的인 個別資本의 擴大運動을 「資本의 集積」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또 Marx는 自然發生的인 個別資本의 擴大運動과 並行해서 諸個別資本의 「結合」 또는 「統合」에 의한 資本의 擴大運動을 「資本의 集中」이라고 했다. Marx는 이 資本의 集中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것은 단순히 蓄積과 同一한 生産手段과 勞動指揮의 集積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形成된 諸資本의 集積이며 그들

* 本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 經濟學科 教授. 本論文은 1981學年度 文教部 學術研究助成費의 支援을 받아 作成된 것임. 本文中 이를테면 p.397의 第5行의 (445 參照)는 林元澤, 『第二資本論』(一潮閣, 1979)에서의 185項目을 指示한 것임.

의 個別的 獨立的 廢棄이며, 資本가에 의한 資本家の 收奪이며 多數의 小資本의 少數의 大資本으로의 轉換이다. 이 過程이 第1의 過程과 다른 것은, 그것은 이미 存在하고 機能을 하고 있는 資本의 分配의 變更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며, 따라서 그 活動範圍은 社會的 富의 絶對的 增加, 즉 蓄積의 絶對的 限界에 의해서 制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서 資本이 하나의 손에서 커다란 덩어리로 膨脹하게 되는 것은, 저 곳에서 많은 손으로부터 資本이 喪失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蓄積乃至 集積과는 判異한 本來의 集中이다.»⁽¹⁾

그런데 Marx에 의하면 資本의 集中은 諸個別資本의 競爭에 의해서 促進된다고 되고 있다. 「이 諸資本의 集中 또는 資本에 의한 資本의 牽引의 法則은 여기서는 展開하지 않기로 한다. 다만 簡單한 事實의 提示로써 足하다. 競爭戰은 商品의 價格引下에 의해서 演出된다. 商品의 價格引下는, 其他 事情이 不變이라고 할 때, 勞動의 生産性에 따라서 決定되며, 그리고 또 勞動의 生産性은 生産의 規模에 의해서 決定된다. 따라서 大資本은 小資本을 이긴다(die Größeren Kapitale schlagen daher die Kleineren).」 「그런데 競爭의 激烈의 程度는 敵對關係에 있는 諸資本의 數에 正比例하고, 그 크기에 反比例한다. 그것은 多數의 資本家の 沒落으로서 끝나는 것이 보통이며, 그들의 資本의 一部는 勝利者의 손에 들어가게 되고 一部는 消滅되고 만다.»⁽²⁾

以上에 引用된 文章에 의해서 Marx가 資本의 集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을 줄 안다. 계속해서 Marx는 또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에 資本이 하나의 손에 있어 巨大한 덩어리로 成長할 수 있는 것은 다른 한편에 그것이 多數의 個個의 손으로부터 빼앗기게 되기 때문이다. 어떠한 産業部分에서 集中이 極限에 達하는 것은 거기에 投下된 모든 資本이 하나의 單獨資本으로 融合될 때일 것이다. 어떠한 社會에 있어 限界에 到達하는 것은 單 1人의 資本家 또는 單 1個의 資本家會社의 손에 社會的 資本 全體가 統合되는 瞬間이다.»⁽³⁾ 이것은 資本의 集中이 進行되었을 最後的 段階를 Marx가 想像해서 描寫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資本의 集積이 推進되는 過程에 있어, 즉 資本의 巨大化가 推進되는 過程에 있어 信用制度 즉 貸付資本 $G-G'$ 즉 銀行에 의한 補助, 아니면 株式資本의 動員 가운데 하나 또는 둘의 方法의 採擇이 要求되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個別資本에 있어서의 「剩餘價値의 資本으로의 轉化」만 가지고서는 競爭力을 具備할 수 있는 資本量을 確保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여기서 銀行과 産業資本 $G-W < \frac{P}{A}^m \dots P \dots W' - G'$ 와 株式會社의 相互關

(1) K. Marx, *Das Kapital*, I, S. 659.

(2) *Ibid.*

(3) *Ibid.*, SS. 660-661.

係가 議題에 오르게 되는 것이다.

먼저 銀行과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W < \frac{P}{A} \dots P \dots W'-G'$ 의 關係를 보기로 하자. Hilferding에 의하면 銀行資本은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W < \frac{P}{A} \dots P \dots W'-G'$ 에 대해서 다음의 2個 種類의 信用을 供與하게 된다는 것이다. (1) 「資本信用」과 (2) 「流通信用」이다 (445 參照).

여기서는 Hilferding의 「資本信用」에 관해서만 살펴보기로 하자. Hilferding은 「資本信用」을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所有者가 資本으로서 充當 못하고 있는 一定貨幣額을 이것을 資本으로서 充當하려고 하는 누군가에게 移轉하는 것」이라고. 또 다음과 같이도 말하고 있다. 「資本信用이란, 移轉에 의해서 遊休貨幣資本으로부터 機能貨幣資本으로 轉化된 貨幣의 移轉」이라고.⁽⁴⁾ 물론 遊休貨幣資本의 所有者는 一定額의 貨幣額의 一定期間을 單位로 하는 一定利子率의 支拂을 全貸與貨幣額에게 適用시킨다는 條件에 立脚해서 資本信用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遊休貨幣資本의 所有者가 直接 產業資本家에게 貸付해주던 直接的인 形態의 貸付로부터 第3者 즉, 銀行이 遊休資本家の 所有者와 產業資本家の 사이에 介入해서 預金·貸出이 이루어지는 間接的인 形態의 貸付가 發生되게 되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利子の 種類가 銀行이 遊休貨幣資本의 所有者에게 支拂하는 預金利子和, 또 하나 銀行이 產業資本家로부터 거두어 들이는 貸出利子の 2種類로 分裂되게 된다는 것에 관해서는 이미 우리가 言及한 바 있다(460 參照). 물론 銀行은 貸出利子和 預金利子の 差額을 그 收入으로 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銀行制度가 確立된 後에는 社會에 存在하는 遊休貨幣資本이 銀行에 의한 積極的인 蒐集活動을 통해서 銀行을 經由해서 產業資本으로 轉換될 수 있었다는 것은 더 말할 必要도 없다. 이 경우 銀行은 利子率(預金利子率)을 遊休貨幣資本 誘引의 미끼로 삼고, 또 한편 全國的으로 蒐集場所(支店)를 設立해서 遊休貨幣資本 즉, 民間貯蓄을 蒐集하게 되었다는 것도 말할 것 없다. 「銀行은 貨幣所有者의 手中에서 遊休하고 있는 一切의 貨幣를 可能한 限 蒐集 集積해서, 이것을 產業資本家에게 貸付하지 않으면 안된다. 銀行의 主要手段은 預金에 利子를 붙이는 것과 預金受入을 위한 蒐集場所(支店)를 設立하는 것이다.」⁽⁵⁾

4. 이리하여 銀行資本은 二重의 $G-G'$ 으로써 形成된다고 할 수 있다. 즉 預金資本 G_1-G_1' 과 貸出資本 G_1-G_2' 이며 預金資本 G_1-G_1' 에 있어서의 貸主는 預金者이며 借主는 銀行이 되고, 한편 貸出資本 G_1-G_2' 에 있어서의 貸主는 銀行이 되고 借主는 產業資本이 되고

(4) R. Hilferding, *Das Finanzkapital*, S. 86.

(5) *Ibid.*, S. 90.

있다. 이 경우 $i=G_1'-G_1$ 는 預金利자가 되고(但 G_1 은 銀行의 自己資本을 控除한 他人資本 즉 預金이라고 한다.), $i'=G_2'-G_1$ 은 貸出利자가 되고 있다. 그리고 $i'>i$ 가 되며, 預金利率과 貸出利率이 어떻게 決定되는가 하는 것은 이미 461과 462에서 보았으므로 여기서는 다시 擧論하지 않기로 한다. 여기서는 다만 銀行資本과 產業資本의 關係에 관해서만 보기로 하자. 銀行資本이 產業資本에 投下되었을 경우 特히 施設金融으로 즉, 固定資本으로 投下되었을 경우 그 產業資本은 確實히 大資本으로서 施設近代化·技術革新을 達成할 수 있으며, 따라서 또 그 個別產業資本은 그만큼 競爭力을 強化할 수가 있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平均費用의 極小點을 右下로 移動시킬 수가 있으며, 同時에 그 個別產業資本의 個別需要曲線을 右上으로 移動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生産物의 品質改善을 통해서). 이리하여 個別產業資本은 銀行資本을 통해서 巨大化 또는 集積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한편에 다음과 같은 事態가 發生된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될 줄 생각한다. Hilferding은 그 事態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自己資本의 커다란 部分을 固定資本으로 돌리고, 流動資本의 大部分을 他人資本으로써 充當한다. 그런데 生産의 規模가 점점 더 커져 固定資本部分이 커지면 커질수록 流動資本에 대한 信用制限은 점점 더 고통스러워진다. 그러나 固定資本으로서도 信用이 要求되게 되면 信用供與의 諸條件은 根本적으로 바뀌어지게 된다. 流動資本은 1回轉期間 後에는 貨幣資本으로 再轉化되지만 固定資本은 보다 긴 期間의 經過中에 그 漸次的인 損耗에 의해서 漸次的으로만 貨幣로 再轉換된다. 따라서 固定資本으로 投資된 貨幣資本은 長期間 拘束되어 있으며 또 長期間 前貸되어 있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銀行이 處理할 수 있는 貸出資本은 大部分 언제든지 預金者의 손으로 回收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 가운데에서 固定資本으로 轉換되기 위해서 貸出되는 것은 銀行 手中에 長期間 滯留되지 않으면 안되는 部分 뿐이다.」 「이 항상 銀行의 自由處分에 맡겨지는 部分만이 固定資本으로서 貸出될 수 있게 된다.」 「이 部分은 銀行이 處理할 수 있는 總資本이 크면 클수록 그 만큼 크고, 또 그 만큼 不變인 것이 되게 될 것이다.」 「따라서 固定資本을 供給하는 銀行은 어느 程度의 規模를 갖지 않으면 안되며 이 規模는 產業企業의 膨脹과 더불어, 그리고 그보다 더 急速히 增大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信用供與가 나타나면 產業에 대한 銀行의 位置도 變化하게 된다.」 「同時에 銀行이 企業에 주는 影響도 增大된다.」⁽⁶⁾ 즉, 產業資本이 巨大化됨에 따라 產業資本의 銀行에 대한 依存度는 더욱 增大되고 따라서 또 그 反作用으로 銀行의 產業資本에 대한 支配도 더욱 增大된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產業資本을 支配하는 銀行資本으로서의 그의 「金融資本」의 概念이 成立

(6) *Ibid.*, SS. 95-96.

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5. 다음에 個別產業資本의 集積 또는 巨大化의 또 하나의 方途로서 株式會社形態를 생각할 수가 있다. 간단히 말하면 株式會社란 「多數」의 產業資本家가 運營하는 「個別」產業資本이라고 할 수 있다. 「多數」의 產業資本家는 그 各者가 投資한 만큼의 株式이라는 株式會社의 收益에 대한 請求權利를 明示한 證券을 所有하게 된다. 따라서 「多數」의 產業資本家들은 株式會社로부터 發生되는 收益을 株式을 根據로 해서 獲得할 수 있다. 그러므로 株式資本은 그 株式會社의 「自己資本」이 된다. 그러므로 株式會社로부터 獲得되는 收益, 즉 配當은 그 性質上 완전히 利潤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잠시 株式資本과 貸付資本 $G-G'$ 특히 銀行資本을 比較해보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株式資本은, 前記한 바와 같이, 「多數」의 產業資本家들이 投資해서 形成된 巨大個別產業資本이므로 「自己資本」이라고 할 수 있는 데 대해서, 銀行資本은 個別產業資本이 外部로부터 빌려들인 借入資本이므로 「他人資本」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前者의 경우에 있어서는 「利潤」이 發生되지만 後者の 경우에 있어서는 「利子」가 發生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利潤」은 「不確實性」이라는 特性을 갖지만 「利子」는 「確實性」이라는 特性을 갖는다. 그리고 前者의 경우에 있어서는 株式會社가 破産되었을 때 株式所有者가 損失을 볼 수 있지만, 後者の 경우에 있어서는, 銀行은 擔保를 確保하고 있으므로 損失을 補償받을 수 있게끔 되고 있다. 그리고 株式會社도 大資本이 獲得할 수 있는 利得, 즉, 技術革新에 의한 極小平均費用의 右下로의 移動과 그 個別需要曲線의 右上으로의 移動에 의한 利得을 確保할 수 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6. 그런데 株式會社は, 그 發展過程에 있어, 必然的으로 「所有와 經營의 分離」現象을 發生시켜 놓게 된다. Hilferding은 이 現象을 「產業資本家로부터의 產業資本家の 解放」이라고 부르고 있다.⁽⁷⁾ 이리하여 產業資本家は 貨幣資本家로 轉換하게 된다. Marx는 株式會社에 관해서 다음 3個의 特色을 들고 있다. 「1. 生産規模의 굉장한 擴大가 이루어져 個人資本에게는 不可能했던 企業이 發生되었다. 2. 資本은 個人資本에 對立되는 社會資本(直接的으로 結合된 諸個人의 資本)의 形態를 取하며, 이러한 資本의 企業은 個人企業에 對立되는 社會資本으로서 나타나게 된다. 3. 現實的으로 機能을 하고 있는 資本家は 他人의 資本의 단순한 支配人, 管理人으로 轉換되고 資本所有者는 단순한 所有者, 단순한 貨幣資本家가 된다.」⁽⁸⁾ 이 Marx가 말한 가운데에서 세번째 것이 바로 「產業資本家の 貨幣資本家로의 轉換」

(7) *Ibid.*, S. 112.

(8) K. Marx, *a.a.O.*, III, S. 477.

을 意味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株式所有者, 즉 利潤을 獲得하는 產業資本가가 貨幣資本가, 즉 利子를 獲得하는 貸付資本가로 轉換되는 것은 株式去來市場이라는 場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즉 그것은 株式價格形成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配當率은 利潤率이므로 原則적으로 利子率보다 높다. 그것은 當然한 理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利子率은 限界利潤率에 의해서 決定되기 때문이다(452 參照). 그러나 問題는 이와 같이 간단하게 解決지을 수가 없다는 것을 또한 알아야 할 것이다. 「所有와 經營의 分離」가 發生되면서 「正常利潤과 超過利潤의 分離」가 發生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즉 正常利潤은 經營의 所得이 되고 超過利潤은 株式所有者의 所得이 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앞에서 우리가 配當率은 利潤率이 된다고 할 때의 그 利潤率이란 利潤總額에서 正常利潤을 控除한 超過利潤을 想定할 때 誘導되는 超過利潤率을 말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株式會社形態의 個別產業資本과 銀行資本에 依存하고 있는 個別產業資本이 共通의 市場에서 充分히 發達하면 兩分野 사이의 衡平現象 즉 「配當率의 利子率化」現象이 發生된다.⁹⁾

그러면 配當率(超過利潤率)은 어떻게 해서 利子率로 轉換된다는 말인가. 株式去來所에 있어서의 株式價格形成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 額面 100원, 1割 配當의 株式가 있다고 하자. 株式所有者는 그로 因해서 10원의 配當(超過利潤)을 獲得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10원을 利子所得으로서 獲得하려고 할 때에는 銀行利子が 5分라고 할 때에는 銀行에 200원을 預金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리하여 額面 100원짜리 株式은 200원으로 株式市場에서 賣買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配當(超過利潤)은 株式價格의 調整을 통해서 利子率과 衡平關係를 形成하게 되는 것이다. 이리하여 「配當率의 利子率化」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配當率의 利子率化」에 있어 또 하나 考慮해야 할 事項은 「危險負擔」이라는 것이다. 지금 어떤 사람이 200원을 가지고 株式市場에서 1割 配當 100원짜리 額面을 살까, 또는 銀行에 預金を 해서 5分의 利子所得을 獲得할까 二者擇一의 選擇을 할 때에는 그 사람은 반드시 銀行預金의 方途를 擇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利子獲得은 確實性領域에 속하고 있는데

(9) Marx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그들이 받는 配當은 利子和 企業者利得을, 즉 總利潤을 包含하고 있을 경우에도(經營者의 俸給은 其他 모든 勞動과 같이 그 價格이 勞動市場에서 調節되는 一種의 熟練勞動의 단순한 勞動賃金이다.) 이 總利潤은 利子の 形態로서만 資本所有者의 단순한 補償으로서 受領된다.」(Ibid.) Marx가 「經營者의 俸給」을 「正常利潤」으로서 取扱한 確實한 典據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다. 그리고 Marx는 여기서 「正常利潤」과 「超過利潤」을 合計한 「總利潤」 가운데에서 「正常利潤」은 「企業者利得」으로, 그리고 「超過利潤」은 「利子」로 轉化되는 것을 明示적으로 叙述하고 있다. 但, 뒤에 나오는 「總利潤」은 「純利潤」으로 고치는 것이 좋을 줄 생각한다.

대해서, 이 配當獲得은 不確實性領域에 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株式販賣者는 할 수 없이 200원보다 더 廉價로 그 株式을 販賣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株式價格算出에 있어 配當所得 10원을 「利子率+危險프리미엄」으로 나누어야 된다는 말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 株式會社의 運營이 不確實하면 할수록 危險프리미엄은 더 커지고 따라서 株式價格은 200원을 훨씬 下回하게 될 것이다. 這問의 事情을 Sweezy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株式所有者는 純粹한 貸金業者보다 損失을 받을 危險이 크므로 株式의 配當率은 당연히 流動的인 危險프리미엄(a variable risk premium) 만큼은 利子를 上回해야 할 것이다. 이 條件을 附加하면 株式所有者가 利潤을 獲得하는 產業資本公司로부터 利子를 獲得하는 貨幣資本公司로 轉換하는 過程이 原則上 完了된다.」고.⁽¹⁰⁾

그리고 「創業者利得」이라는 것도 產業資本公司가 企業을 創立할 때 무릅쓴 不確實性的 代價를 株式市場에서 獲得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7. 以上 우리는 個別產業資本의 巨大化의 두 가지 方途로서 外部金融方式, 즉 他人資本 借入方式과 内部金融方式 즉 株式會社形態에 의한 自己資本擴大方式의 2種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할 수 있다.

이 兩方式 가운데의 前者의 方式, 즉 外部金融方式에 의한 巨大化를 特別히 強調한 사람은 Hilferding이었다. Hilferding은 「金融資本」이라는 用語를 使用함으로써 「產業資本에 대한 金融支配」를 強調했던 것이다. 그런데 Sweezy는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써 Hilferding의 誤謬를 指摘하고 있다. 「Hilferding의 誤謬는 적어도 두 가지 點에서 重要하다. 하나는 金融支配에 대한 先入觀이 蓄積過程의 最近의 가장 重要的 變化, 特히 株式會社의 内部金融의 增大에 대한 理解를 妨害시켜주고 있다.」고.⁽¹¹⁾

그리하여 Baran·Sweezy는 「獨占資本主義란 巨大株式會社에 의해서 形成되고 있는 體制」라고 말하고 있다.⁽¹²⁾ 그런데 Baran·Sweezy는 株式會社는 發展過程에서 株式會社의 重點이 株式所有者로부터 經營者로 점차 移動하게 되었다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1) 支配權은 經營者, 즉 重役會+常任委員들의 手中에 있다. (2) 經營者는 自己繁殖的인 集團이다. 株式所有者에 대한 責任은 實際上的 目的을 위해서는 死文(dead paper)과 같다. (3) 各 株式會社는 經營者가 任意로 처리할 수 있는 内部金融方式을 통해서 金融上的 獨立(financial independence)을 意圖, 達成하고 있다. 初期에 絶對的인 支配力을 行事했던 所有者들은 점차 자취를 감추게 되었으며, 指導者가 없는 狀態가 되었다. 이리하여 比較的 큰 株

(10) P. Sweezy, *The Theory of Capitalist Development*, p. 258.

(11) *Ibid.*, p. 268.

(12) P.A. Baran and P. Sweezy, *Monopoly Capital*, 1975, p. 62.

式會社는 점차 銀行業者로부터도, 그리고 有力한 株式所有者로부터도 獨立하게 되었다.」⁽¹³⁾

8. Lenin은 獨占資本主義의 「4個의 主要現象(vier Haupterscheinungen)」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1) 獨占은 極히 高度의 發展段階에 있는 生産의 集積으로부터 發生했다. 그것은 資本家の 獨占團體(monopolistische Verbände), 즉 카르텔, 신디케이트, 트러스트이다. (2) 獨占은 가장 重要한 原料資源—특히 資本主義社會의 基本的이고 가장 카르텔화된 産業 즉, 石炭業 및 製鐵業—의 占有의 強化를 가져오게 했다. (3) 獨占은 銀行으로부터 發生했다. (4) 獨占은 植民政策으로부터 發生했다.」⁽¹⁴⁾ 즉, Lenin에 의하면 獨占資本主義時代에 있어서는 資本의 集積과 集中이 高度로 進行되고 있는 段階라고 되고 있다. 資本의 集積이 進行되면 進行될수록 大資本이 發生되며, 또 企業數도 적어지게 되며, 그리고 또 必然的으로 大資本의 結合, 즉 資本의 集中이 促進되게 된다. Hilferding도 이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이 産業部門은 個別企業의 資本量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生産部門에 있어서의 企業數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더욱 더 카르텔化에 適合하게 될 것이다.」⁽¹⁵⁾

그러면 다음에는 獨占資本主義 下에 있어서의 價格決定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게 되는가 하는 Marx經濟學의 理論, 즉 Marx經濟學에 있어서의 獨占價格理論을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Marx에 있어서의 獨占價格에 관한 理論을 보면 다음과 같다.

Marx는 「獨占價格」을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다. 「우리들이 獨占價格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一般的으로 다음과 같은 價格을 意味한다. 즉 生産物의 一般的 生産價格에 의해서 規定된 價格과도, 生産物의 價値에 의해서 規定되는 價格과도 아무런 關聯이 없으며, 다만 購買者의 購買慾과 支拂能力만에 의해서 規定되고 있는 價格(ein Preis, der durch die Kauflust und Zahlungsfähigkeit der Käufer bestimmt ist)이다.」⁽¹⁶⁾ 이 Marx의 「獨占價格」에 관한 規定은 그의 「價値法則」과도 그리고 또 그의 「生産價格」과도 아무런 關聯을 갖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그의 投下勞動價値論을 완전히 背反하는 限界效用理論에 立脚한 獨占價格理論의 展開인 듯한 印象마저 준다. 그리고 Marx는 이 「獨占價格」으로부터 「超過利潤」이 發生된다고 하고 있다. 上記 Marx의 獨占價格規定에 接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그 Marx의 獨占價格概念規定方式이 Adam Smith의 그것과 同一하다는 것을 즉각 느낄 수 있을 것이다. Adam Smith는 「獨占價格」을 「購買者를 搾取할 수 있는 最高價格乃至는 購買者가 支拂하려고 하는 最高價格(the highest which can be squeezed out of the buyers, or which

(13) *Ibid.*, pp. 28-29.

(14) N. Lenin, *Der Imperialismus als jüngste Etappe des Kapitalismus*, 1926, S. 109.

(15) R. Hilferding, *a.a.O.*, S. 287.

(16) K. Marx, *a.a.O.*, III, S. 825.

they will consent to give)」이라고 規定하고 있다.⁽¹⁷⁾ 이 Adam Smith에 있어서의 「獨占價格」은 나중에 Marshall에 의해서 「需要價格」이라는 用語로 바꾸어지게 되는데, 하버튼 投下勞動價值論을 主張하고 있는 Marx에 있어 「需要價格」 즉 「効用」에 관한 概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一 大驚愕에 관한 事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Marx에 있어서의 「獨占價格」은 大資本들의 「結合價格」을 意味하지 않고 特殊生産物 이룰때면 特殊한 술(酒)의 價格을 意味하고 있으므로 여기서 우리들은 Marx의 「獨占價格」概念을 완전히 無視해버려도 무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다음에는 Hilferding에 있어서의 資本主義的 獨占의 價格決定理論을 보기로 하자. 그는 「獨占價格」을 「超過利潤(Extraprofit)」 獲得을 目標로 하는 「獨占的 結合(die monopolitische Vereinigung)」에 의한 「結合價格(die Preise dieser Vereinigungen)」이라고 하고 있다.⁽¹⁸⁾ 그리고 그는 「結合價格」인 「카르텔價格(Kartellpreis)」을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카르텔結成은 우선 첫째로 利潤率의 變化를 意味한다. 이 變化는 其他 資本主義的 産業의 利潤率의 犧牲 밑에서 行해지게 된다. 이들 利潤率의 同一水準으로의 平均化는 資本의 移動에 의해서 發生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카르텔結成은 이 投下部門에 있어서의 資本의 競爭에 의해서 阻止되고 있는 것을 意味하고 있기 때문이다. 經濟的 原因과 所有關係(原料의 獨占)에 의한 資本의 自由移轉의 阻止는 바로 市場에 있어서의 販賣者 相互間의 競爭의 廢止의 前提이다.」 「카르텔價格의 引上(Erhöhung des Kartellpreis)에 의해서 實現되는 利潤率의 引上은 其他 産業에 있어서의 利潤率의 引下에 의해서만 達成된다.」 「카르텔利潤은 우선 첫째로 其他 産業部門의 利潤의 割當을 奪取하는 것 以外の 아무 것도 아니다.」 「資本이 倭小하고 經營의 分散이 甚한 産業部門에 있어서는 利潤率의 社會的 平均 以下로의 低下의 傾向이 作用한다. 카르텔化는 이 傾向의 促進을, 이들 部門에 있어서의 利潤率의 더욱 一層 深한 低下를 意味한다.」⁽¹⁹⁾ 이렇게 Hilferding은 獨占價格形成의 說明을 「카르텔價格의 引上」과 거기에 따른 「利潤率引上」에 의해서 說明하려고 하고 있다.

9. 다음에는 그러면 이와 같은 獨占價格의 說明이 Marx의 投下勞動價值論의 見地에서 어떻게 成立될 수 있는가에 관해서 言及해 보기로 하자.

(1) 우선 Hilferding은 「카르텔價格引上」과 거기에 따른 「利潤率引上」을 「資本移動의 不可能」에 의해서 說明하려고 하고 있다. 즉 카르텔을 形成하는 巨大産業資本의 大資本이 外部로부터 進入하는 中資本·小資本의 移動을 막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外部로부터 進入하는

(17) Adam Smith, *Wealth of Nations*, I, p. 68.

(18) R. Hilferding, *a.a.O.*, S. 285.

(19) *Ibid.*, SS. 288-289.

中資本·小資本들은 大資本에 의해서 運營되고 있는 既成 巨大産業資本들과 競爭할 能力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는 大資本이 中資本·小資本보다 競爭력을 갖는 것은 大資本이 新技術을 採擇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自由競爭은 改良된 技術의 採擇에 의해서 不斷의 生産擴大를 強要하게 만든다. 카르텔에 있어서도 보다 좋은 技術의 採擇은 역시 利潤率의 上昇을 意味한다. 뿐만 아니라 카르텔은 新技術을 꼭 採擇해야만 하는데 만약 그것을 採擇하지 않으면 아웃사이드가 新技術을 採擇해서 카르텔에 대한 새로운 競爭에 이것을 利用할 지 모르기 때문이다.」 「技術改良은 하나의 超過利潤을 意味하는데, 이것은 競爭에 의한 商品價格引下에 의해서 消滅될 수 없는 超過利潤이다.」⁽²⁰⁾ 「카르텔形成은 異常의 超過利潤을 意味한다.」⁽²¹⁾

즉 카르텔에 所屬되고 있는 大資本은 中資本·小資本보다 新技術採擇에 있어 有利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잠시 Hilferding의 理論展開에 나타난 不分明性を 指適해보기로 하자. (1) 「카르텔價格引上」에 의해서 「利潤率引上」을 達成할 수 있다고 되고 있는데, 이것을 說明하기 위해서는 巨大産業資本은 그 大資本의 힘으로써 「生産物差別化」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또 그 固有의 需要曲線을 갖고 있고 技術革新에 의해서 그 固有의 需要曲線을 더욱 더 右上으로 移動시킬 수가 있다는 理論을 展開했어야 할 터인데, Marx式 投下勞動價值論을 取하고 있는 Hilferding은 需要曲線을 그의 理論體系內에 導入할 수가 없었으며, 그저 「카르텔價格引上에 의한 利潤率引上」을 내세울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Hilferding도 事實에 있어서는 需要曲線을 導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카르텔價格은 事實상 需要에 달려 있다. 그러나 需要 自體는 資本家の 需要이다. 따라서 카르텔價格은, 理論의으로는, 結局 生産價格+超過利潤(原文에는 「平均利潤率」이라고 되고 있는데 이것은 「超過利潤」으로 고쳐야만 된다고 생각한다:筆者)과 같이 되게 될 것이다.」⁽²²⁾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카르텔價格引上」이 成立되기 위해서는 引上된 카르텔價格을 매긴 原料를 其他 産業資本家들이 購買해 주어야만 된다는 말이다. 우리는 여기서 投下勞動價值論의 信奉者인 Hilferding이 그의 投下勞動價值論을 背反하고 「需要曲線」을 提示하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의 効用勞動二元基準交換理論이 옳다는 것이 Hilferding을 통해서 再確認되었다는 印象을 받았다는 것을 말해 두기로 한다. (2) 다음에 Hilferding은 「利潤率引上」을 「價格의 引上」만에 의해서 說明할 것이 아니라 「費用의 引下」에 의해서도 說明했어야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Hilferding이 新技術採擇이 超過利潤을 發生시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의 趣旨는 新技術採擇이 「費用의

(20) *Ibid.*, S. 293.(21) *Ibid.*, S. 294.(22) *Ibid.*, S. 290.

引下]를 가져오게 한다는 것을 暗示的으로 意味하고 있었는지는 몰라도 明示的으로 新技術採擇이 「費用의 引下」를 가져온다고 한 個所가 없는 것을 볼 때, 우리는 「實質費用」을 表示해야 할 「投下勞動量」으로써 「價格」을 說明하고 있는 Marx의 投下勞動價值論의 誤謬가 여기서 露出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줄 생각한다. 물론 Marx理論에 있어서도 「費用價格」이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기는 하다. 그리고 Marx에 있어서도 「費用價格의 引下」에 의한 「利潤率上昇」을 言及한 文章도 確實히 볼 수 있다. 「어떤 產業資本이 어떤 生産部門에 있어 實現하는 超過利潤은, 特殊한 例外를 除外하면, 費用價格의 引下, 그리고 또 生産費引下에 의해서 發生되며, 그것은 또 資本이 多量 投入되어서 그럼으로써 生産費가 低下되고 한편 勞動生産性 上昇의 一般의 原因(協業, 分業 等)이 보다 高度로, 보다 集約的으로, 보다 커다란 作用範圍에 있어 作用할 수 있는 狀態에 있으며, 한편 機能資本의 範圍를 無視하면, 보다 좋은 作業方法, 新發見, 改良된 機械, 化學的 工場秘密 等 要컨대 새로 改良된 平均水準 以上の 生産手段 및 生産方法을 採擇했는데 基因한다.」⁽²³⁾ 이 Marx의 말은, 若干 誇張해서 말하면, Marx의 全體系의 基礎, 즉 그의 投下勞動價值論과 그로부터 誘導되는 그의 剩餘價值論을 완전히 뒤엎을 만한 發言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말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發言이 Marx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Marx經濟學者들은 總力을 動員해서 Marx의 固有의 投下勞動價值論과 그의 剩餘價值論을 擁護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러한 深刻한 立論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즉 그것은 超過利潤을 發生시키는 原因을 올바르게 「費用의 引下」에 의해서 把握하고 있으며 거기다가 또 그것은 Marx의 投下勞動價值論과 剩餘價值論을 뒤엎을 威力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大規模施設의 採擇은 「極小平均費用」을 右下로 移動시키는 威力을 갖고 있다. 그런데 Marx의 投下勞動價值論에 의하면 大規模施設의 採擇은 勞動生産性向上을 통해서 商品價值, 즉 商品의 「價格」을 引下시킨다고 되고 있다. 즉 新技術採擇에 의해서 大量生産을 하면 「價格」이 下落된다는 것이다. 「費用의 引下」가 아니라 「價格의 引下」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여기서 投下勞動價值論의 矛盾이 白日下에 露呈된다고 우리는 말하고자 한다. 즉 「實質費用」을 表示해야 할 「投下勞動量」이 「價格」을 表示하는 理論을 展開했기 때문이다. Marx의 投下勞動價值論의 立場에 立脚한다면, 「價格 引下」의 結果를 가져오는 新技術採擇이라는 駭怪한 理論展開가 된다는 것이다. Marx는 新技術導入에 의해서 發生되는 剩餘價值를 相對的 剩餘價值라고 부르고 있다. 그런데 386·387·388에 있어 우리가 본 바와 같이, 相對的 剩餘價值란, 勞動者의 生活必需品, 즉 賃金財의 生産部門에 新技術이 導入될 경우에 있어서만 成立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賃金財가 아닌

(23) K. Marx, *a.a.O.*, III, S. 657.

生産物, 이를테면 機械의 生産部門에 導入된 新技術은 超過利潤을 發生시킬 수가 없다는 것이다. 相對的 剩餘價値도 費用 特히 賃金의 (勞動者의 生活水準引下를 隨伴하지 않는) 相對的 引下에 의해서 發生되는 超過利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機械生産部門에 있어 獲得된 超過利潤은 그 機械生産企業에 導入된 新技術 때문이 아니고 그 機械生産企業과는 아무 相關이 없는 賃金財生産部門, 이를테면 綿織物生産業體에 導入된 新技術 때문이라는 駭怪한 理論 展開가 되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Marx의 相對的 剩餘價値에 관한 理論은 「實質費用」을 表示하고 있는 「投下勞動量」이 「價格」을 表示하는 것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重大誤謬를 범하고 있다고 이미 斷罪를 한 바 있다(388 參照).

그러나 Marx도 「費用引下를 目的으로 하는 新技術導入」을, 上記 引用文章에 있어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確實히 明示의 으로 闡明하고 있다. 그리고 그 Marx의 「新技術導入에 의한 費用引下」에 관한 理論展開는 완전히 옳다. 그런데 그 Marx의 「新技術導入에 의한 費用引下」의 理論은, Marx 固有的 投下勞動價値論과 剩餘價値論을 완전히 顛覆해버리고 다른 自己否定의 理論이다.

10. Marx는 「個別的 價値」와 「社會的 價値」, 즉 「市場價値」의 格差를 「超過利潤」이라고 하고 있다(389 參照). 물론 이 「社會的 價値」를 「生産價格」으로 바꾸어놓아도 Marx의 超過利潤에 관한 理論은 成立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럴 경우 勞動生産성이 높은 個別産業資本은 그 「個別的 價値」가 「生産價格」보다 낮으므로 「生産價格—個別的 價値」만큼의 「超過利潤」을 獲得하게 되는 것으로 되고 있다. 그리고 그 「超過利潤(生産價格—個別的 價値)」은 勞動生産성이 낮은 個別産業資本으로부터 勞動生産성이 높은 個別産業資本으로의 「價値移轉」을 통해서 즉 「不等價交換」을 통해서 獲得된다고 되고 있다. 즉 Marx에 있어서의 絕對的·相對的 剩餘價値는 勞動者의 賃金의 絕對的·相對的 引下에 의해서, 즉 資本家が 勞動者를 搾取함으로써 獲得되는 것인 데 대해서, Marx에 있어서의 超過利潤은 勞動生産성이 높은 企業이 全生産部門內的 勞動生産성이 낮은 企業을 搾取함으로써, 즉 資本家が 資本家を 搾取함으로써 獲得된다는 理論構成이 되고 있다. 그런데 Hilferding은 「獨占價格」 즉 「引上된 結合價格」, 즉 「引上된 카르텔價格」을 「生産價格+超過利潤」이라고 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Hilferding에 있어서의 「超過利潤」이라는 것이 Marx에 있어서의 「超過利潤」하고는 다른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Hilferding에 있어서는 「超過利潤」은 「카르텔價格」, 즉 「價格引上」에 의해서 發生된다고 되고 있는 데 대해서, Marx에 있어서는 「超過利潤」은 「生産價格—個別的 價値」로부터 發生된다고 되고 있다. 이 Hilferding의 「獨占價格」, 즉 「카르텔價格」을 Marx에 있어 模索해보면 結局 Marx의 「獨占價格」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Marx에 있어서의 「獨占價格」을 無視해 버리기로 하였으므로 여기서 다시 그것을 擧論하는 것은 그만 두기로 한다. 特히 Hilferding 自身이 「카르텔價格」은 需要와 關聯이 있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Hilferding에 있어서의 「獨占價格」, 즉 「카르텔價格」은 Marx에 있어서의 生産價格과는 아무 關聯이 없는 것으로 斷定지어도 無妨할 줄 생각한다.

그런데 Hilferding은 「카르텔價格」은 카르텔에 屬하고 있지 않은 其他 個別産業資本들을 搾取한다고 하고 있다. 「鐵鑛石의 販賣價格의 上昇은 銑鐵生産者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費用價格의 上昇을 意味한다. 그런데 銑鐵의 販賣價格은 그냥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있다.」 「카르텔利潤率의 上昇의 結果는 銑鐵生産者들의 利潤率低下가 된다.」⁽²⁴⁾ 「카르텔利潤은 우선 첫째로 他産業部門의 利潤의 收奪 以外の 아무것도 아니다.」⁽²⁵⁾ 즉 여기서 Hilferding은 大資本이 中資本·小資本을 不等價交換에 의해서 搾取한다는 自己 나름의 不等價交換理論을 展開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Hilferding의 不等價交換理論이 「個別的 價値」와 「生産價格」의 格差를 「超過利潤」으로 보는 Marx의 不等價交換理論과 다르다는 것을 또한 注意해 주기 바란다. 前者는 資本의 移動이 不可能하다는 前提 위에 立脚하고 있는 데 대해서, 後者는 資本의 移動이 可能하다는 前提 위에 立脚하고 있기 때문이다.

11. Lenin은, 그의 『帝國主義論』에 있어, 帝國主義는 「資本主義의 獨占의 段階」라고 하고 있다. 그리하여 Lenin에 있어서는 獨占資本主義와 帝國主義는 그대로 一致되고 있는 것으로 되고 있다. 그리고 Lenin은, 獨占資本主義 즉, 帝國主義 以前에 競爭의 資本主義段階가 있었다고 하고 있다. Lenin은 帝國主義의 「5個의 基本的 標識(fünf wichtigste Merkmal)」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들고 있다. 「(1) 經濟生活에 있어 決定的 役割을 하는 獨占을 創出할 만한 高度의 發展段階에 到達했다. 生産과 資本의 集積. (2) 銀行資本과 産業資本의 融合과 이 金融資本을 土臺로 하는 金融寡頭制의 成立. (3) 商品輸出과 區別되는 資本輸出이 特別히 重要的 意義를 갖게 되었다. (4) 國際的인 資本家の 獨占團體가 形成되어서 世界를 分割하고 있다. (5) 最大의 資本主義的 強國에 의한 領土의 分割이 完了되었다.」⁽²⁶⁾ 이 「5個의 基本的 標識」은 앞에서 본 「4個의 主要現象」과 大同小異하다고 할 수 있는데, 다만 前者에 있어서는 「國際的인 資本家の 獨占團體」가 強調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한가지 奇異하게 느껴지는 것은 資本主義的 獨占價格形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이 「5個의 基本的 標識」에서도, 그리고 「4個의 主要現象」에서도 關說되고 있지 않

(24) R. Hilferding, *a.a.O.*, S. 287.

(25) *Ibid.*, S. 288.

(26) N. Lenin, *a.a.O.*, S. 80.

다는事實이다.

Lenin은, 競爭的 資本主義 下에서는 商品輸出이 典型的이었지만, 獨占資本主義 下에서는 資本輸出이 典型的이 되었다고 하고 있다. 競爭的 資本主義 下에서 英國이 工業生産物을 輸出하면 그것을 輸入한 後進國은 英國에 대해서 原料輸出로써 그 代金을 支拂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는 동안 英國에서 資本의 集積이 進行되고 龍大한 「資本의 過剩」이 發生됨으로써, 後進國으로 資本이 輸出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後進國에서 本國에서보다 高利潤을 確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그 理由는 後進國에 있어서는, 우선 資本이 不足하고, 低賃金, 低原料價格, 또 低地價가 成立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資本輸出形態에는 産業資本의 「自國植民地에의 進出」(英國)과 貸付資本의 貸與의 2個形態가 있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前者를 英國의 「植民地的 帝國主義(koloniale Imperialismus)」라고 했고, 後者를 佛蘭西의 「高利貸的 帝國主義(Wuckerimperialismus)」라고 하고 있다.⁽²⁷⁾ 그리고 資本輸出은 商品輸出과 다음과 같은 關係에 있다고 하고 있다. 「借款의 條件으로서 借款額의 一部分을 債權國의 生産物, 特히 軍需品, 船舶 等の 購買를 위한 支出로서 割當하고 있다는 것이다. 佛蘭西는 最近 20年間 이 手段을 採擇해 왔다. 이리하여 資本輸出은 商品輸出을 促進하는 手段이 되고 있다.」⁽²⁸⁾

12. Baran·Sweezy는 「獨占資本主義의 研究는 競爭的 資本主義의 研究와 같이 價格機構에 관한 說明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競爭的 資本主義에 있어서는 個別企業은 價格受容者(price taker)의 立場에 있지만, 獨占資本主義에 있어서는 大企業은 價格決定者(price maker)의 立場에 있게 된다.」고.⁽²⁹⁾ 그리고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우리들이 巨大株式會社가 價格을 決定한다고 할 때, 우리들은 그들 株式會社가 그 生産物에 대해서 어떠한 價格을 選擇(choose)할 수 있으며, 또 사실 選擇하고 있다는 것을 意味하고 있다. 물론 그들의 選擇의 自由에는 限界가 있다. 一定의 價格의 以上과 以下에 있어서는 生産을 전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 選擇의 幅은 넓다. 이 幅 가운데에서 어떤 價格이 選擇될 것인가.」⁽³⁰⁾

여기서 價格競爭이 禁止된 寡占의 경우를 想定할 때 寡占價格은 다음과 같이 해서 決定된다고 Baran·Sweezy는 말하고 있다. 「價格과 生産量이 철저하게 規制되고 있는 카르텔부터 一定의 價格表를 지키려는 非公式의 協定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가 있다. 美國에서는 歷史

(27) *Ibid.*, S. 58.

(28) *Ibid.*, S. 59.

(29) Baran and Sweezy, *op. cit.*, p. 63.

(30) *Ibid.*, p. 66.

的 理由로부터 獨占의 事實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競爭의 觀念이 항상 強했기 때문에 反트러스트法이 販賣者들의 그러한 公公然한 結合을 防止하고 있다. 「그리하여 美國에 있어서의 寡占價格은 價格先導制(price leadership)로서 알려지고 있는 無言의 結合(a kind of tacit collusion)에 의해서 決定된다.」⁽³¹⁾ 그런데 價格先導制에는 「獨裁制」와 「民主制」의 2個 類型이 있다고 Baran·Sweezy는 말하고 있다. 「獨裁制는 製鋼業, 自動車에 있어서와 같이 하나의 會社가 다른 會社보다 壓倒的으로 強大한 產業에서 發生되는 데 대해서, 民主制는 有力會社가 規模, 實力方面에 있어서 比較的 均等한(more nearly equal) 產業에 있어 發生된다.」고 하고 있다.⁽³²⁾

다음에는 Baran·Sweezy에 있어서의 「獨占資本主義에 있어서의 生産費下落傾向(the downward trend of production costs under monopoly capitalism)」에 관해서 보기로 하자.⁽³³⁾ 그들에 의하면 獨占資本主義에 있어서는 技術과 勞動生産性이 急速히 發達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또 「費用의 引下(cut costs)」를 가져온다고 하고 있다.⁽³⁴⁾ 그리하여 獨占資本主義에 있어서는 「利潤率低下의 法則(the law of falling profit)」이 아니고 「剩餘增加의 法則(the law of rising surplus)」이 作用하고 있다는 理論을 展開하고 있다.⁽³⁵⁾ 즉, 그들에 의하면 「費用引下 만큼 利潤은 增加(lower costs and higher profits)」된다는 것이다.⁽³⁶⁾

13. 여기서 우리는 Baran·Sweezy의 「剩餘增加의 法則」에 관해서 檢討해보기로 하자. 먼저 그들의 寡占價格決定理論에 관해서 보기로 하자. Baran·Sweezy는 여기서 Marx의 投下勞動價値論의 拘束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寡占價格決定理論을 展開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 그들은 Hilferding式的 「生産價格+超過利潤」의 理論도 展開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그들이 價格先導制에 관한 Marx理論에 의한 解明을 試圖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 될 것이다. (그런데 價格先導制는 Hilferding의 「生産價格+超過利潤」에 의해서도 說明될 수 있을 줄 생각한다.)

다음에 그들의 「費用의 引下」에 있어서도 Marx의 投下勞動價値論이 전혀 適用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Marx式的 「費用價格의 引下」라는 말이 나올 듯하기도 한데 그것도 나오지 않고 있다. 우리가 이 때까지 몇 번 言及한 바 있는 바와 같이, Marx의 投下勞動價値論으로부터는 「費用의 引下」의 理論은 誘導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것은 「實質費用」을 表

(31) *Ibid.*, p. 69.

(32) *Ibid.*, p. 71.

(33) *Ibid.*, p. 79.

(34) *Ibid.*, p. 76.

(35) *Ibid.*, p. 80.

(36) *Ibid.*, p. 77.

示해야 할 「投下勞動量」이 「價格」을 表示하는 것으로 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勞動生産性 向上에 의한 「投下勞動量의 減少」는 「價格의 引下」는 가져오지만 「費用의 引下」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이 本來의 Marx의 投下勞動價值論이기 때문이다. 하여튼 Baran·Sweezy는 「寡占價格」과 「費用」에 관한 理論을 Marx의 拘束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自由無碍의 境地에서 說明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리하여 「剩餘增加의 法則」이 誘導되고 있다. 즉 價格은 價格先導制에 의해서 高水準에서 固定되고 있으며 生産費는 大資本에 의한 技術革新에 의해서 引下된다고 한다면 그 差額, 즉 剩餘는 增加되기 마련이라는 것은 더 說明할 必要가 없을 줄 생각한다. 사실 Marx의 「資本의 有機的 構成高度化에 의한 利潤率低下의 法則」보다는 「資本의 有機的 構成高度化에 의한 剩餘增加의 法則」이 더 合理的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 技術革新이, Marx가 主張하고 있는 바와 같이, 必然的인 利潤率低下를 가져온다면 그러면 무엇 때문에 敢行하는 技術革新이라는 말인가. Marx의 資本의 有機的 構成高度化에 의한 利潤率低下의 理論은 바로 이 點에 있어 自己矛盾에 陷入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Marx의 「資本의 有機的 構成高度化에 의한 利潤率低下理論」이 矛盾에 빠지게 되는 것은 資本의 有機的 構成高度化, 즉 技術革新은 極小平均費用을 右下로 移動시켜주는 機能을 하는데, Marx에 있어서는 勞動生産性向上을 가져옴으로써 價格下落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剩餘價值率을 1이라고 하면) 利潤率低下의 傾向을 가져오게 한다는 넌센스理論을 展開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Baran·Sweezy는 「利潤率低下의 法則」은 「競爭的 資本主義」에 있어 成立된다는 理論을 展開하고 있다.

14. 다음에는 Mandel의 『後期資本主義』에 있어 展開되고 있는 그의 獨占資本主義에 관한 理論을 보기로 하자.

그는 資本主義의 發展을, (1) 自由競爭의 資本主義, (2) 帝國主義, (3) 後期資本主義의 3 段階로 區分하고 있으며, 同時に 不均等發展段階에 있는 資本主義的, 半資本主義的, 前資本主義的 生産方法의 複合으로 構成되는 世界資本主義體制를 想定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注意하지 않으면 안될 事項은, Lenin이 資本主義의 發展을 競爭的 資本主義와 獨占資本主義=帝國主義의 2段階로 區分하고 있는 데 대해서(Baran·Sweezy도 대강 그렇게 資本主義의 發展을 2段階로 區分하고 있다.), Mandel은 Lenin의 「帝國主義=獨占資本主義」를 第2期 「帝國主義」와 第3期 「後期資本主義=獨占資本主義」로 分離시킴으로써 結局 3 段階說을 主張하고 있는 셈이 된다는 것이다. Mandel에 의하면, 第2期인 「帝國主義」란 資本主義的 生産方法을 取하고 있는 유럽에 있는 中心國(center)과 半資本主義的乃至 前資本主義的 生産方法을 取하고 있는 非유럽의 周邊國(periphery)의 複合的 構成體系를 指稱하고 있는

데 대해서, 「獨占資本主義」는 주로 2次大戰後에 成立되고 있는 巨大資本이 中資本·小資本과 共存하고 있는 體制를 呼稱하고 있는 것으로 되고 있는데, 第3期인 獨占資本主義를 그는 또 「後期資本主義(late capitalism)」라고 부르고 있다.⁽³⁷⁾

그런데, Mandel에 의하면, 「平均利潤(average profit)」을 上回하는 「超過利潤(surplus profit)」은 주로 資本의 有機的 構成의 格差乃至는 勞動生産性的 格差에 의해서 發生된다고 하며, 즉 不均等發展狀態에서 發生된다고 하며, 第1期인 「自由競爭의 資本主義」時期에 있어서는 「開發地域과 未開發地域의 共存狀態(the regional juxtaposition of development and underdevelopment)」에서, 그리고 第2期인 「古典的 帝國主義」의 時期에 있어서는 「發展된 帝國主義國家와 未開發狀態에 있는 植民地國家乃至 半植民地國家의 共存狀態(the international juxtaposition of development in the imperialist states and underdevelopment in the colonial and semi-colonial countries)」에서, 그리고 第3期인 「後期資本主義=獨占資本主義」時期에 있어서는 「第1次的으로 帝國主義國家, 第2次的으로 半植民地에 있어서는 尖端生産部門과 未發達生産部門의 共存狀態(the overall industrial juxtaposition of development in growth sectors and underdevelopment in others, primarily in the imperialist countries but also in the semi-colonies in a secondary way)」에서 發生된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第1期 「自由競爭의 資本主義」에 있어 發生되는 超過利潤을 「地域的 超過利潤(regional surplus-profits)」이라고 했고, 第2期 「古典的 帝國主義」下에서 發生되는 超過利潤을 「植民地的 超過利潤(colonial surplus-profits)」이라고 했으며, 第3期 「後期資本主義=獨占資本主義」下에서 發生되는 超過利潤을 「技術地代(technological rent)」라고 불렀다.⁽³⁸⁾

15. 그러면 다음에는 Mandel은 獨占價格을 어떻게 規定하고 있으며 또 獨占利潤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檢討해 보기로 하자.

그런데 그에 있어서는 「獨占的 超過利潤(monopoly surplus-profits)」이라는 用語는 나오지만 「獨占價格」이라는 用語는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理由로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가 너무도 充實히 Marx의 價值法則에 順從하고 있었다는 것이 結局 그로 하여금 獨自의인 獨占價格理論을 展開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그는 Marx가 獨占價格을 價值와 그리고 生産價格과도 전혀 關聯이 없는 것으로 規定지우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Hilferding이 獨占價格을 Marx로부터 離脫해서 「生産價格+超過利潤」이라고 規定짓고 있는 境地에까

(37) E. Mandel, *Late Capitalism*, 1975, p. 47.

(38) *Ibid.*, Chapter 2.

지도 到達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獨占價格理論을 展開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獨占資本主義 下에 있어서의 價格引上」 또는 「管理價格」의 存在를 認定하고 그에 관한 理論的 檢討 없이 그냥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後期資本主義 下의 大企業은 相對的 市場統制라는 條件(寡占의 競爭·價格先導制) 下에서 그들의 販賣商品의 價格을 好況時에 쉽게 引上시켜 景氣後退時에 있어 安定化를 期할 수 있다. 이 管理價格을 뒷받침하고 있는 價格政策의 主目的의 하나는 市場變動에 對備하는 先賣(preemption of market fluctuations)이다.」⁽³⁹⁾ 이 Mandel의 말은 「價格先導制」, 즉 「管理價格」의 存在를 그저 認定만 하고 있으며 「價格先導制」乃至 「管理價格」에 關해서 아무런 理論的 解明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하여 그는 獨占價格理論을 展開하지 않은 채 獨占利潤에 關한 解明만 하고 있다.

그는 「後期資本主義 下에서 어떻게 價值法則이 貫徹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闡明하는 것이 課題」라고 明示的으로 表示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⁴⁰⁾ 그러나 그는 「價值法則이 直接的으로 商品의 交換價值에 影響을 미치는 것은 單純商品生産의 테두리 안에서만이고, 資本主義의 生産方法 下에 있어서는 價值法則은 利潤率平均化의 法則(equalization of the rate of profit) 즉 諸資本 間의 競爭에 의해서 媒介된다.」⁽⁴¹⁾고 말함으로써 資本主義의 商品生産 $G - W < \frac{P}{A} \dots P \dots W' - G'$ 에 있어서는 價值法則이 아니고 生産價格의 原理가 作用된다고 하고 있다.

그러면 生産價格에 關한 理論, 즉 利潤率平均化의 理論을 통해서 그는 어떻게 超過利潤을 誘導해내고 있을까. 그는 結局 個別的 價值와 生産價格의 乘離가 곧 超過利潤이 된다는 Marx의 理論을 그대로 踏襲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그는 超過利潤을 利潤率平均化를 통해서 說明하고 있다. 그리고 또 그는 超過利潤의 發生原因을 全産業에 있어서의 各 個別産業資本의 勞動生産性의 格差에서 發見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生産이 增大되고 競爭이 激化되면 近代技術으로써 生産된 商品은 社會的 平均市場價值를 下落시키게 된다. 그렇게 되면 超過利潤이 發生되게 된다. 왜냐하면 그 個別的 價値는 그 平均的 市場價値(average market value) 밑에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競爭者들은 이 近代技術을 採用하려고 堦빈다. 또 새로운 資本所有者가 이 生産部門에 進入해서 超過利潤을 獲得하려고 한다. 그리하여 競爭이 激化되어서 革新的 經營이 利潤率을 또 다시 社會的 平均以下로 再次 引下시킬 때, 즉 社會的 勞動의 節約과 그에 의해서 惹起되는 市場價値의 引下에 의해서 利潤率平均化가 實現된다고 할 수 있다. 이 時期 全體를 통해서 技術革新은

(39) *Ibid.*, p. 429.

(40) *Ibid.*, p. 527.

(41) *Ibid.*, p. 528.

超過利潤을 實現케 만든다.]⁽⁴²⁾

16. 그리고 超過利潤은 「利潤率平均化」라는 前提 위에서 成立되고 있는 만큼, Mandel에 있어서의 超過利潤은 「資本의 完全한 可動性」이라는 前提 위에서 成立되고 있다는 것도 더 說明할 必要가 없을 줄 생각한다. 그런데 獨占資本主義 以前の 時期에 있어서는, 즉 資本의 集積과 集中이 그다지 크게 進行되고 있지 않았던 時期에 있어서는, 資本의 可動性이 즉 自由進入이 比較的 完全하게 存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獨占資本主義時代, 즉 後期資本主義時代에 있어서는 資本의 完全한 可動性이 즉 自由進入이 存在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資本의 完全한 可動性이 存在하던 前獨占資本主義時代에 있어서는 超過利潤이 一時的·偶然的인 現象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獨占資本主義, 즉 後期資本主義의 時期에 있어서는 超過利潤은 「永續的」인 特性을 띠게 됨으로써 여기에 「獨占的 超過利潤」이 發生된다는 理論이 成立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Mandel은 또 「獨占은 絶對的이 아니다(no monopolies are absolute).」 「獨占分野에의 進入의 困難性은 항상 相對的이다.」라고 하여 「獨占的 超過利潤」의 永續性を 否認하는 理論을 展開하고 있다.⁽⁴³⁾ 그리하여 그는 「超過利潤率의 平均化傾向(the equalization of surplus-profits)」을 主張하고 나서고 있다. 그리하여 그는 獨占部門과 非獨占部門에 있어서의 「2個의 平均利潤率의 共存(the juxtaposition of two average rates of profit)」에 관한 理論을 展開하고 있다.⁽⁴⁴⁾

17. 다음에는 Mandel에 있어서의 「超過利潤」과 「獨占的 超過利潤」에 관한 理論에 대한 檢討를 해보기로 하자. Marx의 剩餘價值論은, (1) 資本家が 勞動者를 搾取해서 獲得하는 絶對的·相對的 剩餘價值, 즉 賃金の 絶對的·相對的 引下에 의해서 獲得하는 剩餘價值와, (2) 資本家が 資本家를 搾取해서 獲得하는 超過利潤, 즉 全產業內에서 高生産性企業이 低生産性企業을 搾取해서 獲得하는 超過利潤의 2種類로 區分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Mandel은 定石대로 後者の 立場에 立脚해서 Marx에 順從하면서 超過利潤에 관한 理論을 展開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前記한 바와 같이, Marx의 剩餘價值論은 「實質費用」을 表示해야 할 「投下勞動量」을 「價格」으로 看做하는 重大誤謬 위에 展開되고 있기 때문에, Marx의 剩餘價值論을 充實히 追從하던 Mandel의 超過利潤에 관한 理論도 역시 誤謬를 犯하고 있다는 것이 곧 우리의 見解이다. 그런데 誤謬를 犯하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그 誤謬로부터 脫却할까 하고 몹부림치고

(42) *Ibid.*, p. 93.

(43) *Ibid.*, p. 94.

(44) *Ibid.*, p. 95.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捕捉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Marx의 剩餘價值論이 誤謬에 빠지고 있다는 間接的 證據를 獲得할 수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Mandel은 資本의 有機的 構成高度化에 의한, 즉 勞動生産性向上에 의한 超過利潤發生을 「技術改良과 資本의 有機的 構成高度化에 의한 費用價格의 引下(reduction of cost-price through improved machinery and a higher organic composition of capital)」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Marx가 한 것과 꼭 같이, Mandel은 Marx의 用語 「費用價格의 引下」라는 말을 使用해서 「費用의 引下」를 表現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⁴⁵⁾ Marx의 投下勞動價值論에 의하면 資本의 有機的 構成高度化, 技術改良에 의해서 「費用의 引下」가 아니라 「價格의 引下」라는 전혀 틀린 結果가 誘導되는 것을 알고 있는 Mandel은, Baran·Sweezy와 같이, Marx의 投下勞動價值論을 一擲하는 대신, 「費用價格」이라는 用語를 使用함으로써 「費用」에 代替하고자 하는 몸부림을 볼 수 있다. 이 點에 있어 Mandel은 Baran·Sweezy 만큼 率直하지 못하다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 前記한 바와 같이, Marx 自身이 「個別的 資本이 어떤 生産分野에서 實現하는 超過利潤은 費用價格의 引下, 즉 生産費의 引下に 基因한다.」라는 말을 함으로써, 自己 自身이 展開해놓은 投下勞動價值論과 剩餘價值論을 實質的으로 완전히 拋棄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는, 그도 Baran·Sweezy와 같이, 「費用價格의 引下」라는 用語를 使用하지 말고 그냥 「費用의 引下」라는 用語를 使用했어야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습게도 그는 Baran·Sweezy가, 自己와 같이 「費用價格」이라는 概念을 使用하지 않았다고 다음과 같이 詰難의 말을 Baran·Sweezy에게 던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Baran·Sweezy의 『獨占資本』의 決定的인 誤謬는 그들이 固定된 社會的 剩餘總量에 의해서 獨占利潤이 制約을 받고 있다는 것을 看過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原因은 Marx의 投下勞動價值論과 Keynes의 總需要概念에 立脚한 新古典派理論을 結合시킨 데에서 緣由하고 있다.」⁽⁴⁶⁾ 이 Mandel의 말은 Baran·Sweezy가 超過利潤이 企業에 의한 企業의 搾取에서 發生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말인데 우리는 뒤에서 超過利潤이 企業에 의한 企業의 搾取가 아니라는 것을 밝힐 心算으로 있다. 그리고 Mandel은 Baran·Sweezy의 獨占價格理論이 Marx의 投下勞動價值論과 Keynes理論의 折衷이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Marshall의 獨占價格理論(「超過利潤=需要價格-供給價格」),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다.

18. Mandel의 「獨占的 超過利潤」에 관한 理論은 Hilferding의 「獨占價格=카르텔價格」에

(45) *Ibid.*, p. 77.

(46) *Ibid.*, p. 535.

관한 理論보다 低水準의 理論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 그 理由를 말해보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1) Hilferding은 「結合價格」으로서의 「카르텔價格」을 「獨占價格」으로 規定했지만, Mandel의 경우에 있어서는, 「結合價格」으로서의 「獨占價格」이 全的으로 說明되고 있지 않다는 것과, (2) 資本의 可動性이 制限되고 있는 獨占資本主義=後期資本主義에 있어서는 「利潤率平均化」가 成立될 수가 없으며, 「資本의 完全可動性」과 「利潤率平均化」가 成立되는 基礎 위에서만 成立되는 Mandel의 「超過利潤=生産價格一個別的 價値」도 따라서 成立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獨占資本主義에서 「超過利潤」이 成立될 수가 없는데 獨占資本主義에서 어떻게 「獨占的 超過利潤」이 成立될 수 있다는 말인가. Mandel은 「超過利潤率의 平均化」라는 말을 하고 있다. 그것은 무엇을 意味하고 있을까. 아마도 Mandel은 大企業部門에 있어 大資本들만이 完全可動할 수 있게 됨으로써 大企業部門에서 成立되는 超過利潤率의 平均化된다고 생각한 모양인데, 平均化되는 것은 超過利潤이 될 수 없다는 Marx의 理論을 Mandel은 沒却하고 있는 것같이 생각된다. 이 모든 誤謬는 Mandel이 Marx의 틀린 投下勞動價値論과 거기서부터 誘導되는 틀린 生産價格理論과 또 틀린 利潤率平均化理論을 踏襲하고 있는 데에서 나오는 必然的 結果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 우리는 뒤에서 利潤率平均化理論이 自由進入의 理論에 의해서 代替되어야 한다는 理論을 展開하게 될 것이다.

II. 「不完全競爭」·「獨占的 競爭」

19. 다음에는 近代經濟學에 있어서의 Robinson의 「不完全競爭」의 理論과 Chamberlin의 「獨占的 競爭」의 理論을 보기로 한다. 그런데 그것에 관해서 言及하기 前에 우리는 먼저 「市場形態」에 관해서 一旦 整理를 해두기로 하자. 그리고 우리는 便宜上 偏向이 없으며 標準型이라고 할 수 있는 「市場形態」를 提示하기 위해서 Samuelson의 『經濟學』(11版)에서 展開되고 있는 理論을 잠시 參考로 하기로 한다. 그는 市場形態에 (1) 獨占 (2) 少數의 販賣者가 類似한(similar) 또는 差別化된(differentiated) 商品으로써 競爭하는 寡占 (3) 多數의 販賣者가 많은 差別化된 商品을 販賣하고 있는 Chamberlin模型 (4) 完全競爭의 경우 등 4個의 경우가 있다고 하고 있다. 이것을 整理해보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企 業 數	同質的生產物	差別化된 生産物
多 數	完 全 競 爭	不完全競爭 또는 獨占的 競爭
少 數	無差別型寡占	差別型 寡占
1 人	完 全 獨 占	

우리는 「完全競爭」에 있어서의 資本主義的 絕對價格決定理論을 앞에서 Marshall의 「數量을 媒介變數로 하는 價格決定理論」에 있어 보았다고 할 수 있다(291 參照). 그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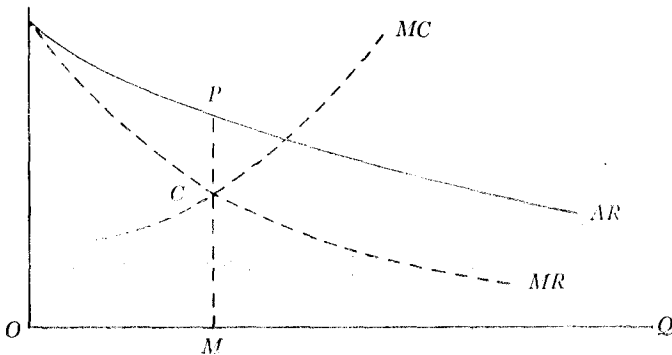
$$\left. \begin{aligned} P &= P(Q) [P'(Q) < 0] \\ K &= K(Q) \\ P(Q) &= K(Q) \end{aligned} \right\} \quad (1)$$

와 같이 表示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그러면 다음에는 「不完全競爭」에 있어서의 資本主義的 絕對價格決定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게 되느냐 하는 것을 Robinson의 「不完全競爭」의 理論을 통해서 알아 보기로 하자.

20. 그는 우선 完全獨占에 있어서의 價格決定부터 論及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生産量은 다음과 같이 해서 決定된다는 것이다.

平均收入曲線 AR과 限界收入曲線 MR과 限界費用曲線 MC를 前提해 놓고 限界收入=限界費用(MR=MC)이 되는 M이 가장 有利한 生産量이 되고, MP는 그 生産量의 價格 즉 獨占價格이 된다는 理論을 展開하고 있다(圖 1). 그리고 ε이 需要의 價格彈力性이라고 할 때는 $P = MR \times \frac{\epsilon}{\epsilon - 1}$ 이 成立된다고 하고 있다.⁽⁴⁷⁾ 이러한 獨占價格決定理論은 Robinson 이전에 벌써 確立되고 있는 理論이다. 그런데 Robinson은 이 獨占價格決定理論을 出發點으로 해서 그의 不完全競爭理論을 展開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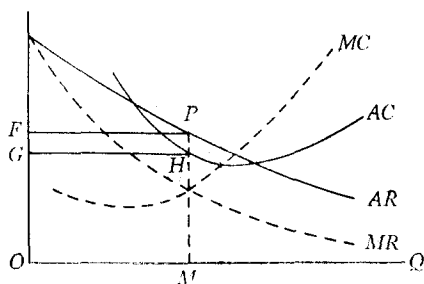
〈圖 1〉

그러기 위해서 그는 獨占企業이 1個라는 假定으로부터 出發해서 企業의 數를 增加시키는 節次를 取하고 있다. 그런데 그는 「企業의 數의 變化는 個別企業에 있어서의 需要曲線을 移動시키고 또 그 費用도 移動시킨다. 1 産業에 있어서의 利潤水準이 新企業進入을 支配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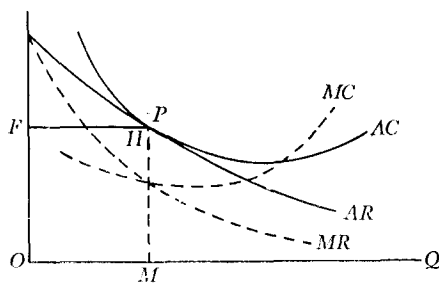
(47) J. Robinson, *The Economics of Imperfect Competition*, 1954, pp. 51-54.

다고 看做하는 것은 慣例가 되고 있다.」고 하고 있다. 즉 「企業의 自由進入」이라는 條件을 「1個 밖에 存在하지 않는 獨占企業」이라는 條件에 附加시키고 있다. 그리고 그 경우 「1産業에 있어서의 正常利潤이 新企業進入 그리고 舊企業流出을 할 수 없게 하는 利潤水準이 되고」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48) 그리하여 超過利潤이 存在하는 限 自由進入은 加速되어서 超過利潤이 消滅되는 瞬間 즉 正常利潤만이 成立되는 瞬間 그 産業은 均衡을 이루게 된다고 되고 있다. 「企業의 數가 變化하지 않게 되는 瞬間 그 産業은 完全均衡에 있게 된다. 그럴 경우 諸企業(the firms)에 의해서 獲得되는 利潤은 正常이 된다.」(49)

그리고 正常利潤이 確定되기 위해서는 獨占企業의 경우에 있어서는 想定되지 않았던 「平均費用曲線」이 導入되어야 한다고 그는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價格이 平均費用과 같아지게 되는 경우에 利潤은 正常」이 되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完全均衡은 二重의 條件 즉 限界收入과 限界費用이 같아지는 條件과, 平均收入(價格)이 平均費用과 같아지는 條件을 必要로 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結局 Robinson에 의하면 $MR=MC$, $AR=AC$ 라는 「完全均衡의 二重條件」(the double condition of full equilibrium)이 바로 不完全競爭均衡이 된다는 것이다(〈圖 2〉〈圖 3〉). (50)



〈圖 2〉



〈圖 3〉

21. 그러나 以上の 條件만 가지고서는 不完全競爭均衡은 成立되지 않는다. 거기에 「生産物差別化」라는 또 하나의 條件이 附加되어야 비로소 完全한 不完全競爭均衡이 成立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Robinson에 의하면 現實市場에서 消費者는 價格 以外에 其他 條件도 考慮하게 된다는 것이다.

(1) 첫째로 消費者는 輸送費用을 考慮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小賣市場에서 消費者가 商品購買行動을 할 때 本意 아니게도 먼 데까지 가야만 할 때 나타나게 되는 現象이라고 하고 있다.

(48) *Ibid.*, p. 92.(49) *Ibid.*, p. 93.(50) *Ibid.*, p. 94.

(2) 다음에는 消費者는 「有名한 商標에 의해서 주어지는 品質의 保證(the guarantee of quality provided by a well-known name)」에 의해서 影響을 받는다는 것이다.

(3) 各 生産者에 의해서 주어지는 便宜(서비스의 迅速性, 販賣者의 態度, 信用의 期間, 消費者의 欲望에 대한 配慮)의 差異에 의해서도 影響을 받는다는 것이다. (51)

이와 같이 Robinson은 「其他 條件」으로서 3個 條件을 들고 있으나, (1)과 (3)은 完全競爭에 있어서도 成立될 수 있으며, 完全競爭에 있어 成立될 수 없는 것은 (2) 「生産物差別化」뿐이므로, 結局 其他 條件은 단 하나 「生産物差別化」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問題가 惹起될 수 있게 될 줄 안다. 〈圖 2〉 〈圖 3〉의 AR은 어떤 特殊한 差別化된 生産物에 대한 需要曲線을 表示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需要曲線은 特殊한 價格에 대한 彈力性을 갖고 있다. 그런데 新企業의 進入에 의해서 그 需要曲線은 左下로 移動하게 된다고 Robinson은 말하고 있다. 이것은 新企業의 進入에 의해서 AR曲線에 대한 需要者 가운데의 一部分이 他企業 生産物에 대한 需要者로 變하게 된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것은 또 무엇을 意味하고 있는가 하면, 어떤 差別化된 生産物에 대한 選好도 絶對的이 아니라 相對的이며 變化할 수 있다는 말이다.

22. 以上은 Robinson의 不完全競爭均衡理論의 概要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的 見解를 말해보면 다음과 같이 될 줄 안다.

(1) Marx理論에 의하면 自由競爭으로부터 獨占이 發生된다고 되고 있는데, Robinson의 경우에 있어서는, 獨占으로부터 競爭이 發生된다는 그러한 理論展開가 되고 있다. 그런데 「獨占→競爭」의 發展理論은 벌써 Menger에 의해서 展開된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아 두는 것이 좋을 줄 생각한다. Menger도, 그의 價格理論을 展開할 때, 맨처음에 獨占 下에 있어서의 價格決定(price formation under monopoly)」을 取扱한 뒤에 「雙方的 競爭 下에 있어서의 價格決定(price formation under bilateral competition)」을 取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A와 B_1, B_2, \dots, B_n 의 交換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음에 A_1, A_2 와 B_1, B_2, \dots, B_n 의 交換을 取扱하고 있다. (52) 여기에 있어 「競爭→獨占」의 發展을 主張하고 있는 Marx學派의 主張에 對立되는 「獨占→競爭」의 發展을 主張하는 Menger, Robinson의 近代經濟學의 系列이 있다는 것은 興味津津한 問題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줄 안다.

(2) 다음에 問題되어야 할 것은, 不完全競爭均衡狀態에 있어서는 그 產業에 進入한 모든 企業이 同時에 「完全均衡의 二重條件」을 充足시켜야만 되는가 하는 問題이다. 만약 그 產

(51) *Ibid.*, p. 89.

(52) C. Menger, *Principles of Economics*, pp. 197-219.

業에 進入한 모든 企業이 同時에 「完全均衡의 二重條件」을 充足시켜 준다고 할 때에는, 그때에는 그 產業에 進入한 모든 企業이 同一規模의 生産施設을 갖고 있다는 말이 될 것이다. 다음에 「完全均衡의 二重條件」이 그 產業에 進入한 모든 企業에 있어 同時에 充足되지 않을 때에는 어떠한 狀態가 發生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로 하자. 그럴 때에는 「完全均衡의 二重條件」을 充足시키고 있는 企業은 그 產業에 있어서의 「限界企業」이 되고 餘他 企業 즉 「完全均衡의 二重條件」을 充足시키지 못하고 있는 企業 즉 超過利潤을 發生시키고 있는 企業들은 「限界內企業」이 된다는 理論이 展開될 수 있을 줄 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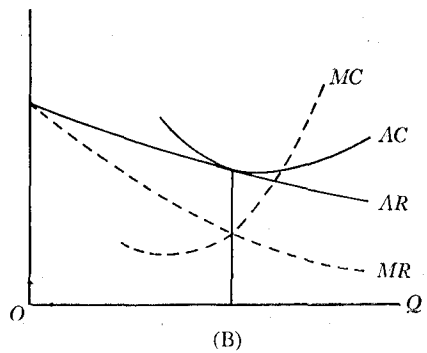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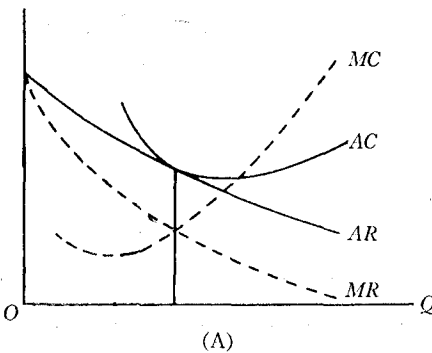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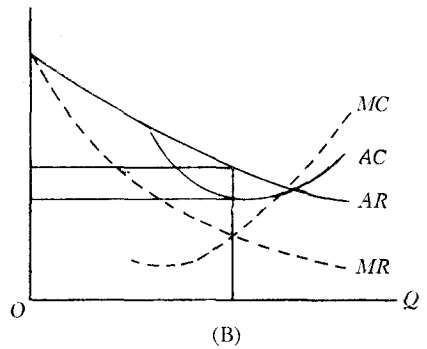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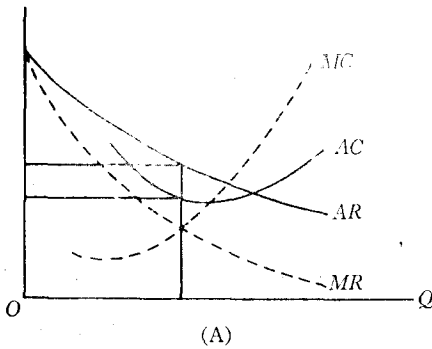
23. 다음에는 Robinson이 展開하는 不完全競爭均衡理論을 產業全體에 適用시켜서 產業의 價格決定理論을 展開할 때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기로 한다.

우선 (a) 그 產業에 進入한 모든 企業이 同一의 生産施設을 具備하고 있으며, 따라서 모든 企業이 同一의 費用曲線을 갖고 있다고 할 경우를 생각해 보기로 하자. Robinson 自身 「모든 企業이 同一의 生産規模」를 갖고 있는 이 경우를 想定하고 있는 것같이 推測된다. 왜냐하면 「企業의 數가 變化하지 않게 되는 瞬間 그 產業은 完全均衡에 있게 된다. 그럴 경우 그 產業에 있어서의 諸企業(the firms)에 의해서 獲得되는 利潤은 正常이 된다.」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20 參照). 그리고 이 경우에 있어서도 各 企業은 各其 固有의 個別需要曲線을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할 줄 생각된다. 왜냐하면 「生産物差別化」는 不完全競爭成立의 必須的인 構成條件이 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하나의 重大問題가 惹起될 수 있게 될 줄 안다. 그것은 各 企業이 갖고 있는 特有的 個別需要曲線 즉 個別平均收入曲線은 즉 「生産物差別化」는 各 企業마다의 「價格差別化」現象도 가져 오지 않느냐 하는 問題이다. 그런데 이 重大한 問題를 Robinson은 提起하지 않고 있으며 不問에 붙이고 있다. 그는 다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을 뿐이다. 「諸企業은 平均費用 가운데 包含되고 있는 正常利潤을 上回하는 超過利潤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하여 餘他 新企業들이 그 產業에 進入해 들어 오므로써 이들 新企業과 舊企業은 同一形態의 費用曲線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그 商品의 生産量은 더욱 一層 增大됨으로써 新企業의 進入은 舊企業의 個別需要曲線을 더욱 一層 左方으로 移動시키게 된다고 볼 수 있다. 長期的인 均衡의 새로운 位置는 個別需要曲線이 다시 한 번 平均費用曲線에 接할 때 達成된다고 할 수 있다.」⁽⁵³⁾ 여기에 있어서는 進入企業들이 價格을 어떻게 決定하며 그 價格은 舊企業의 價格과 어떻게 다르며 또 新企業 相互間에 있어서는 價格差別現象이 發生되는가 發生되지 않는가 하는 極히 重要的 問題가 全的으로 關說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할 수 없이 Robinson을 대신해서 우

(53) J. Robinson, *op. cit.*, p. 98.

리가 이에 관한 理論을 展開해야만 된다는 不必要한 負擔을 引受하게 된다.

여기에 同一形態의 費用曲線을 갖고 있으나 相異한 個別需要曲線 즉 個別平均收入曲線을 갖고 있는 A, B의 2個 企業이 있다고 하자(圖 4)(圖 5)). 그럴 때 限界收入=限界費用이 즉 $MR=MC$ 가 되는 生産量에서 決定되는 價格도 다를 것이고 그리고 또 「完全均衡의 二重條件」을 充足시키는 價格도 各各 다르게 될 것이다. 그럴 때에는 그 產業에 있어서 一物一價가 成立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러한 不合理을 除去하기 위해서 Robinson을 대신해서 다음과 같은 理論展開를 하려고 한다.



〈圖 4〉

〈圖 5〉

24. Robinson은 不完全競爭均衡理論을 展開할 때 오직 4個의 概念만을 使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AR(平均收入曲線), AC(平均費用曲線), MR(限界收入曲線), MC(限界費用曲線) 등이다. 우리는 거기에다가 또 하나의 Marx의인 概念「資本」을 附加시켜야만 된다고 생각한다. Robinson은 「資本」概念을 使用하지 않고 市場形態論을 展開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理論展開는 「歷史的 展望(historical perspective)」을 喪失할 危險性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指摘하고, 바로 여기에 近代經濟學의 接近方法에 立脚한 Robinson의 不完全競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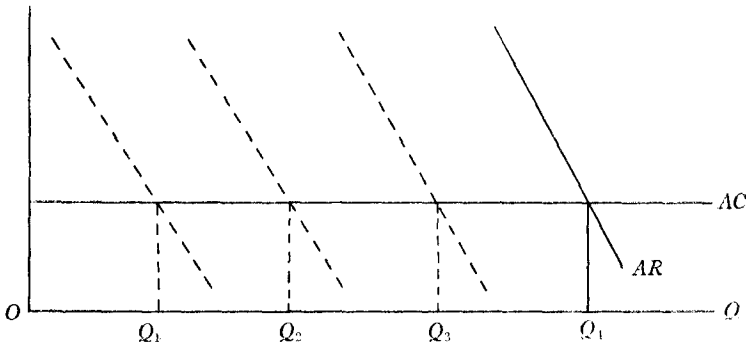
爭均衡理論의 抽象性(不充分性)이 內在하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指摘해 두고자 한다. 「資本」概念을 使用함으로써 우리가 지금 究明하고 있는 問題를 再表現해 보면 다음과 같이 될 수 있을 줄 생각한다. 여기 A라는 單獨企業이 즉 獨占企業이 存在하고 있으며 商品 이틀대면 綿衣를 生産하고 있다고 한다(圖 1). A企業은 單獨生産者(獨占生産者)인 만큼 莫大한 超過利潤 PH를 獲得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본 A企業과 비슷비슷한 「資本」을 갖고 있는 B도 企業을 일으켜서 A企業의 商品과 비슷비슷하면서도 若干 다른 商品을 生産해냈다고 하면 B企業도 역시 超過利潤을 獲得할 수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A企業의 商品과 B企業의 商品은 비슷하면서도 다르기 때문에 B企業의 出現으로 因하여 A企業의 販賣量은 減少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즉 A企業의 個別平均收入曲線은 左下로 移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超過利潤이 存在하는 限 A, B와 비슷비슷한 「資本」을 갖고 있는 C, D, E企業 等도 進入하게 되고 따라서 生産量도 增大되고 거기 따라서 各企業의 價格도 下落되고 結局 超過利潤이 消滅됨으로써 各企業마다 「完全均衡의 二重條件」이 充足되게 된다는 것이다(圖 2)(圖 3). 우리는 Robinson의 不完全競爭均衡理論을 「補完」하기 위해서는 그 產業에 進入하는 모든 企業이 비슷비슷한 「資本」을 갖고 있고, 따라서 費用曲線도 비슷비슷하게 되고 즉 競爭力도 비슷비슷하게 되고 또 따라서 個別需要曲線 즉 個別平均收入曲線도 비슷비슷하게 된다는 附加條件을 Robinson의 不完全競爭均衡理論에 添付시켜야만 된다고 생각된다.

以上과 같은 附加條件을 添付시키면 結局 그 產業에 進入한 모든 企業은 競爭力이 비슷비슷하므로 費用曲線도 같아지게 되고 그리고 設使 生産物差別化現象은 나타나고 있지만 商品品質面에서는 差別現象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價格差別化現象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즉 그 產業에 進入한 모든 企業은 生産物差別化現象은 갖고 있지만 個別需要曲線 즉 個別平均收入曲線은 全部 同一하다고 看做해도 無關하다는 結論이 誘導될 수 있게 될 줄 안다.

그리고 이러한 狀況下에 있어서의 「產業에 있어서의 不完全競爭均衡」은 다음과 같은 그림에 의해서 表示될 수 있을 줄 생각한다(圖 6).

즉 Robinson의 不完全競爭均衡理論은 結局 Marshall의 長期均衡理論과 같은 外形이 된다는 것이다. 但 Marshall의 長期均衡理論에 있어서는 各企業의 個別需要曲線 즉 個別平均收入曲線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Robinson의 不完全競爭均衡理論에 있어서는, 各企業의 個別需要曲線 즉 個別平均收入曲線이 나타나고 있다는 事實이다. 그리고 各企業의 個別需要曲線 즉 個別平均收入曲線이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積極的인 形態로서 즉 實



〈圖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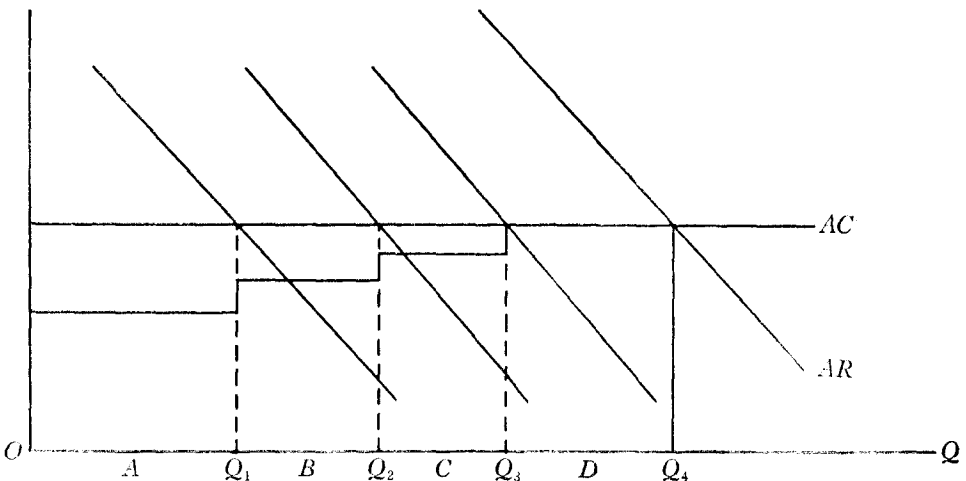
線形態로서 나타나지 않고 消極的인 形態로서 즉 點線形態로서 나타나고 있다는 事實이다. 그리고 各 企業의 AC曲線은 同一하므로 그것을 Marshall式 PE曲線으로 表示하고 產業의 市場平均費用曲線을 表示할 때는 〈圖 6〉의 AC가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限界收入=限界費用에 의한 生産量決定·價格決定」은 Marshall의 「數量을 媒介變數로 하는 價格決定」과 같다고 할 수 있으므로, Robinson의 不完全競爭均衡에 適用된 資本主義的 絕對價格決定理論도

$$\left. \begin{aligned} P &= P(Q) \\ K &= K(Q) \\ P(Q) &= K(Q) \end{aligned} \right\} \quad (1-1)$$

와 같이 表示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25. 다음에 (b) 그 產業에 進入한 모든 企業이 資本規模가 同一하지 않으므로 競爭力面



〈圖 7〉

에서 差別現象을 나타낸다고 할 때, 즉 大資本企業은 中資本企業, 小資本企業보다 낮은 極小平均費用을 갖고 있고, 보다 右上에 位置하고 있는 個別需要曲線 즉 個別平均收入曲線을 갖고 있다고 할 때에는 어떻게 되는가를 보기로 한다. 그럴 때 「完全均衡의 二重條件」을 具備한 企業은 限界企業이 되게 될 것이다. 그럴 때에는 「産業에 있어서의 不完全競爭均衡」은 앞의 <圖 7>과 같은 그림으로 表示될 수 있게 될 것이다.

<圖 7>의 市場平均費用曲線 AC는 역시 Marshall式의 PE曲線으로 表示한 것이다. 「産業에 있어서의 不完全競爭均衡」理論은 또 Marshall의 短期均衡理論과 같은 外形이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을 것이다. 但 Marshall의 短期均衡理論과 한 가지 다른 點은 Marshall의 短期均衡理論에 있어서는 各企業의 個別需要曲線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 Robinson의 不完全競爭均衡理論에 있어서는 各企業의 個別需要曲線이 나타나고 있다는 事實이다. 그리고 (a)의 경우와 다른 點은, (a)의 경우에 있어서는, 市場平均費用曲線이 <圖 6>에서 보는 바와 같은 X軸에 平行되는 水平線 AC가 되고 있는 데 대해서, (b)의 경우에 있어서는, 市場平均費用曲線이 <圖 7>에서 보는 바와 같은 段階的 形態를 이루고 있음으로써 (a)의 경우에 있어서는 發生되지 않는 超過利潤이 發生되고 있다는 것과, 또 하나 (a)의 경우에 있어서는 進入企業이 비록 差別化된 生産物을 生産하고 있다고 하지만 大同小異한 個別需要曲線, 즉 個別平均收入曲線을 갖고 있음으로써 그것이 積極的인 形態로서가 아니라 消極的인 形態로서, 즉 實線形態로서가 아니라 點線形態로서 나타나고 있는 데 대해서, (b)의 경우에 있어서는 進入企業들이 差別化된 個別需要曲線, 즉 個別平均收入曲線을 갖고 있음으로써 價格差別化現象까지도 나타내고 있다는 事實이다. 價格差別化現象을 나타내고 있는 여러 개의 個別需要曲線, 즉 個別平均收入曲線에다가 同一價格을 適用시킨다면 進入企業마다의 販賣量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즉 (b)의 경우에 있어서는 進入企業의 個別需要曲線, 즉 個別平均收入曲線은 消極的인 形態로서가 아니라 積極的인 形態로서, 즉 點線形態로서가 아니라 實線形態로서 나타나고 있다는 事實이다.

그런데 아직도 하나의 重大한 問題가 남아 있다. 그것은 A會社의 1,000원짜리 電池와 B會社의 800원짜리 電池를 消費者는 어떠한 基準에 立脚해서 區別·購買하느냐의 問題이다. 우리는 이 問題를 다음과 같이 해서 解決하고자 한다. 生産者가 異質勞動을 同質勞動으로 換算할 수 있는 것 같이, 消費者도 差別化된 生産物을 價格調整을 통해서 同質化換算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A會社의 1,000원짜리 電池와 B會社의 800원짜리 電池는 無差別이다라는 式으로, 그리하여 異質的인 各企業의 平均收入曲線을 同質化함으로써 集計한 産業의 平均收入曲線 AR이 그려질 수 있는 것이다.

結局 (a)과 (b)의 差異點은, (a)에 있어서는 비슷비슷한 크기의 「資本」들이 進入하고 있는데 대해서, (b)에 있어서는 「資本」의 크기에 있어 決定的인 差異가 있는 資本들이 進入한다고 되고 있는 點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Marshall의 短期均衡理論은 보기에 따라서는 不完全競爭均衡理論의 1種이 된다고도 할 수 있을 줄 생각한다.

26. Robinson은 「正常利潤」을 「新企業이 그 產業에 進入하려는 傾向과, 舊企業이 그 產業으로부터 流出하려는 傾向이 보이지 않는 利潤水準」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正常利潤」을 上回하는 利潤을 「超過利潤」이라고 말하고 있다. 但 Robinson은 「超過利潤」을 「異常利潤(abnormal profits)」이라고도 하고 있다.⁽⁵⁴⁾ 즉 「正常利潤」은 企業이 生産要素를 結合해서 生産을 하는 代價로서 즉 그 「勞動」에 대해서 應당 받아야 할 補償이다. 그러므로 「正常利潤」은 搾取에 의한 所得이 아니다. Adam Smith도 「重役」(principal clerk)은 「監視와 指揮의 勞動(labour of inspection and direction)」에 대한 代價로서 賃金を 받는다는 말을 했는데, Adam Smith는 여기서 「正常利潤」을 企業家가 「監視와 指揮의 勞動」에 대한 補償으로 당연히 받는 報酬를 指稱했다고 할 수 있다.⁽⁵⁵⁾

그런데, Marx에 있어서는, 超過利潤을 「正常利潤」을 上回하는 部分으로서가 아니라 「平均利潤」을 上回하는 部分으로서 取扱하고 있다. 왜냐하면 「超過利潤=生産價格-個別的 價值」라고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Hilferding도 「超過利潤」을 「價格引上」 즉 「카르텔價格」에 의해서 獲得할 수 있는 「平均利潤」을 上回하는 部分이라고 하고 있다. 왜냐하면 「獨占價格=生産價格+超過利潤」이 成立되고 있기 때문이다(10 參照).

하여튼 Marx나 Hilferding이나 둘 다 「超過利潤」을 「平均利潤」을 上回하는 部分이라고 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平均利潤」 또는 「利潤率의 平均化」에 관해서 우리의 見解를 表明해 보기로 하자. 利潤率平均化理論의 基礎에는 資本의 完全可動性이라는 前提가 介在하고 있다. 資本은 항상 高利潤을 追求하고 運動하고 있으므로 低利潤狀態에 있는 資本은 撤去해나가고 高利潤狀態가 展開되던 諸資本은 進入해 들어오므로 結局 利潤率平均化狀態에 있어 均衡을 達成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資本의 完全可動性이라는 前提 그 自體가 완전히 非現實인 前提라는 것을 알아야 될 줄 생각한다. 이를테면 A가 經營하고 있는 工場의 利潤率이 低率이고, B가 經營하고 있는 工場의 利潤率이 高率이라고 할 때, 資本이 實際에 있어 어떻게 移動해 간다는 말인가. 만약 A가 自己施設을 완전히 處理하고 B工場의

(54) *Ibid.*, p. 94.

(55) A. Smith, *op. cit.*, I, p. 51.

生産物과 同一의 生産物을 生産하는 工場을 建立했다고 하면 그것은 Marx가 말하는 利潤率平均化現象이 아니고, 近代經濟學에서 말하는 自由進入現象이라고 할 수 있으며 「自由進入」은 「利潤率平均化」와는 아무 關聯도 없으며 오직 그들 企業이 獲得하는 正常利潤을 上回하는 超過利潤을 減少시킬 따름이다. 그리고 만약 A企業의 株式所有者가 自己企業의 株式을 賣渡하고 B企業의 株式을 購買함으로써 兩企業의 株式이 同一率의 配當을 獲得하게 된다 해도 그것은 資本의 移動現象이라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株式의 賣買와 資本의 移動은 同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結局 資本의 完全可動性을 前提로 하는 利潤率平均化理論은 結局 非現實的인 理論이라는 斷定이 이와 같이 해서 내려지게 될 줄 안다.

Schumpeter도 利潤率平均化理論을 다음과 같이 批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企業者利潤이 平均화된다는 것은 現實적으로 전혀 存在하지 않는 現象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에 관해서 아무 할 말이 없다. 우리는 同一場所에서, 同一生産部門에서 여러가지로 다른 利潤을 觀察할 수가 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여러 많은 學者들이 이 理論을 主張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利子和 企業者利潤을 混同하고 있기 때문이다.」⁽⁵⁶⁾

우리는 利潤率平均化理論은 自由進入理論에 의해서 代替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利潤率平均化理論이 消滅되어 버리게 된다면, Marx에 있어서의 「超過利潤=生産價格-個別的 價値」의 理論도 結局 消滅되고 말 것이다. 그렇게 되면 資本家가 資本家를 搾取한다는 Marx의 理論도 또한 消滅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또 Mandel의 超過利潤에 관한 理論도 妥當性을 잃게 되고 Mandel이 Baran·Sweezy가 資本家가 資本家를 搾取한다는 理論을 展開하지 않았다고 그들을 非難하고 있는 것도 완전히 핀트가 틀린 수작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줄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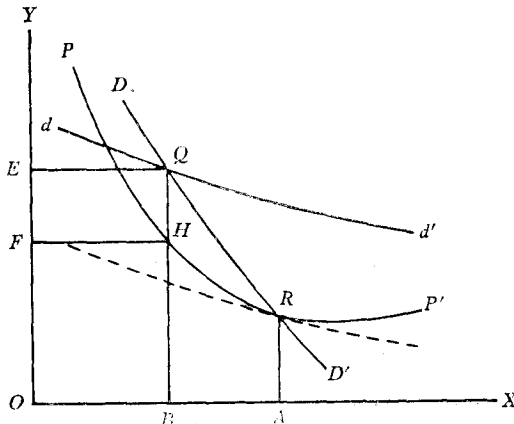
27. Robinson의 不完全競爭均衡理論은 4個의 概念, 즉 AR (平均收入曲線), AC (平均費用曲線), MR (限界收入曲線), MC (限界費用曲線)에 의해서 展開되고 있는데, 우리는 앞에서 그 4個의 概念에다가 또 하나 Marx의 「資本」概念을 附加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이것은 또 다음 事項을 意味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을 줄 생각한다. 즉 Marx學派의 「獨占資本主義」에 관한 理論에는 4個의 概念, 즉 AR (平均收入曲線), AC (平均費用曲線), MR (限界收入曲線), MC (限界費用曲線) 등이 缺如되고 있으며 그 대신 이 4個의 概念의 役割을 「個別的 價値」「生産價格」이 하고 있는데, Marx에 있어서의 「超過利潤」이 消滅됨으로써 Marx學派의 「獨占主義」에 관한 理論은 致命的인 打擊을 받게 되었다고도.⁽⁵⁷⁾

(56) J. Schumpeter, *Theorie der wirtschaftlichen Entwicklung*, 2. Aufl., S. 235.

(57) 1953년에 執筆한 『『不完全競爭』再論(‘Imperfect Competition’ Revisited)』에서 Robinson은 不完全競爭理論展開의 基礎理論이 되고 있었던 $MR=MC$ 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價

28. 다음에는 Chamberlin의 「獨占的 競爭」의 理論에 關係서 考察해 보기로 하자. Chamberlin도 Robinson과 같이 아니 Robinson 以上으로, 「生産物의 差別化」(the differentiation of the product)를 내걸고 있다. 「商標」, 「商品名」, 「包裝」, 「品質」, 「디자인」等 生産物 自體가 지니고 있는 特色 以外에 販賣者의 立地의 便利性도 生産物差別化의 條件이 되고 있다고 하고 있다.⁽⁵⁸⁾ 그리고 그는 「獨占的 競爭」에 關係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純粹競爭과 純粹獨占은 2個의 極端이다. 現實價格은 그 兩極 가가이에서 決定되지 않고 中間의 位置(a middle point)에서 決定된다.」고.⁽⁵⁹⁾

그러면 그는 「獨占的 競爭」의 理論을 어떻게 展開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기로 하자. Chamberlin은 우선 超過利潤을 獲得하고 있는 1企業을 想定하고 있다. <圖 8>에 있어 PP' 는 平均費用曲線, DD' 는 그의 競爭者의 價格도 그의 價格과 同一하다는 假定 밑에 있어서의 個別需要曲線, dd' 는 그의 競爭者를 全的으로 度外視하고 그만이 價格의 變動에 對應한다고 假定할 때의 個別需要曲線을 各各 表示하고 있다고 한다.



<圖 8>

지금 <圖 8>에 있어 均衡價格이 BQ 이라고 하자. 그럴 때 「各 企業」의 販賣量은 OB 가 되어 「各 企業」의 超過利潤은 $FHQE$ 가 된다고 한다. 다음에 Q 를 通過하는 또 하나의 需要曲線 dd' 를 긋는다. 그것은 그 企業이 其他 競爭企業들이 그들의 價格을 BQ 에 固定시켜 놓고 있을 경우 自己 企業의 價格만을 引下시켜서 確保할 수 있는 販賣量의 増大를 表示하

格・生産量問題를 取扱하는 데 充分하다고 생각했던 $MR=MC$ 의 假定은 現實的인 價格・生産量分析에 何等의 도움도 안된다(by no means a suitable basis).」고(J. Robinson, *Contributions to Modern Economics*, 1978, p. 166). 그렇기는 하나 「책도 한번 出版되면 著者와 別個의 運命을 갖는다(Habent sua fata libelli).」라는 말에 따라 우리는 1953년에 한 Robinson의 發言을 여기에서는 默殺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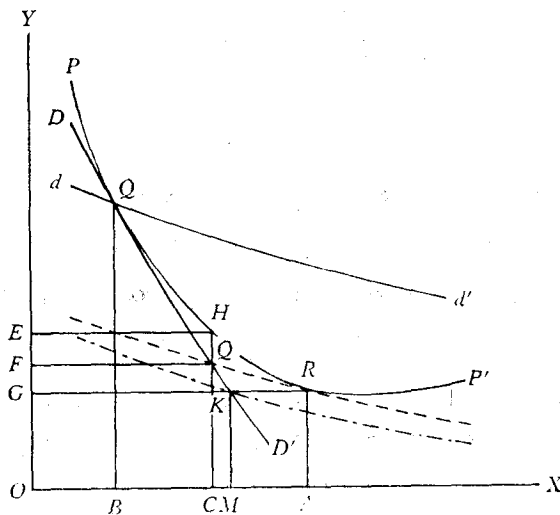
(58) E.H. Chamberlin, *The Theory of Monopolistic Competition*, 1956, p. 56.

(59) *Ibid.*, p. 64.

고 있다. 분명히 그 企業은 dd' 에 따라서 價格을 右下로 引下시킴으로써 그 企業의 利潤을 增加시킬 수 있다. 그는 이 때 그의 競爭企業들이 不得已 對抗적으로 그와 同一한 政策을 取하는 結果 結局 그 企業의 利潤도 減少될 것이라는 疑懼心 없이 價格引下를 할 수가 있다. 그런데 販賣者의 한 사람에게 價格引下政策을 取하게 한 「보다 커다란 利潤」이라는 바로 그 動機는 其他 企業들에게도 꼭 같은 政策을 取하게 만들 것이다. 이와 같이 dd' 는 「와 個個의 企業이 價格引下政策을 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說明해 주고, DD' 는 「價格의 一般的인 下落이 있을 경우 그의 現實의인 販賣量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表示하고 있다. dd' 는 價格의 下落에 따라 左下로 移動하게 되며 結局 AR 에서 움직이지 않게 된다. 그 點 以下로 價格이 下落된다면 어떤 企業도 利益을 獲得할 수 없게 된다.

DD' 의 位置는 販賣者의 數에 따라서 決定된다. 販賣者數가 많을수록 DD' 는 左下에 있게 된다. 全體 가운데서 차지할 수 있는 各 販賣者의 販賣可能量이 적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販賣者의 數가 적어질수록 DD' 는 右上에 位置하게 될 것이다.

다음에 價格이 BQ 일 때 超過利潤을 追求하는 新企業들이 그 產業에 進入해 들어온다고 하자. 그럴 때에는 (圖 9)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DD' 는 左下로 移動해감으로써 結局 PP' 와 接하는 位置에까지 밀려가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價格은 BQ 가 되고 「各 企業」의 生産量은 OB 가 된다. 그리고 이 位置에서 價格은 平均費用과 같아지게 된다. 그런데 利潤增加의 可能性 때문에 이 位置는 不安定한 것이 된다. 이 狀況은 Q 를 通過하는 需要曲線 dd' 에 의해서 더욱 明白히 나타날 수 있다. 이 경우 「各 企業」들이 全部 價格



〈圖 9〉

을 引下하리라는 것은 dd' 에 의해서 明白하다고 할 수 있으며, 또 한편 그렇게 全企業들이 價格을 引下함으로써 全企業이 損失을 보게 된다는 것도 DD' 에 의해서 明白해진다. 만약 價格이 CQ' 까지 下落했다고 할 때, 「各企業」의 販賣量은 OC 가 되며 그 損失은 $FQ'HE$ 가 된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脫出路가 있다. 그것은 그 企業이 價格引下를 더욱 推進하여 AR 까지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Q'R$ 은 Q' 를 通過하는 dd' 이며 dd' 는 R 點에서 PP' 와 接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하면 그 企業은 겨우 費用을 補償하게 되고 損失을 免할 수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R 點에서 均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企業이 그렇게 함으로써 價格이 AR 까지 下落할 때 「各企業」의 販賣量은 OA 가 아니고 OM 이 되며 損失은 以前보다 더 커지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企業의 流出 없이는 均衡은 達成될 수가 없게 된다. 企業이 流出됨으로써 企業數가 減少되면 DD' 는 右上으로 移動하여 R 點을 通過하는 位置에서 停止하고 거기서 均衡이 達成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의 「各企業」의 生産量은 OA 가 되고 價格은 AR 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均衡은 2 個의 條件에 의해서 達成되게 된다는 것이다. (1) dd' 가 PP' 에 接하는 것, (2) DD' 는 그 接點에 있어 dd' 와 PP' 와 交叉된다는 것.⁽⁶⁰⁾

29. 以上이 Chamberlin의 獨占的 競爭均衡理論의 概要인데 다음에는 Chamberlin의 이 獨占的 競爭均衡理論에 관한 우리의 見解를 披瀝해 보기로 하자.

우선 Chamberlin의 獨占的 競爭均衡理論이 Robinson의 不完全競爭均衡理論과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부터 檢討해 보기로 하자. Chamberlin 自身『獨占的 競爭의 理論』第9章「獨占的 競爭과 不完全競爭의 差異」에서 自己 自身の 理論과 Robinson의 理論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過大하게 說明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는 그것을 參考로 하면서 우리의 見解를 밝혀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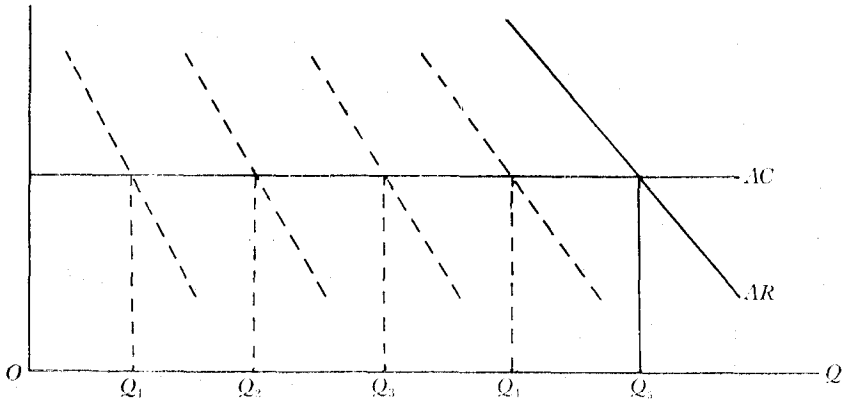
(1) Chamberlin 自身도 主張하고 있는 바와 같이, Robinson의 不完全競爭均衡理論에 있어서는 「限界收入=限界費用에 의한 價格決定・生産量決定」이 理論展開의 基礎가 되고 있는데 대해서, Chamberlin의 獨占的 競爭均衡理論에 있어서는 限界概念이 전혀 나타나지를 않고 있다는 것이다. Robinson의 경우 <圖 1>에 있어서는 Q 點(P 點)이 「限界收入=限界費用」에 의해서 確定지워지고 있는데, Chamberlin의 경우에 있어서는 Q 點이 어떻게 確定되고 있는지가 明示되지 않고 있다<(圖 8)>. Robinson의 경우에 있어서는 「限界收入=限界費用」의 接近方法을 採擇함으로써 理論의 出發點을 單獨企業(獨占企業)에 있어서는 獨占價格決定과 獨占利潤의 存在로 잡아 거기서부터 「生産物差別化」의 特性을 갖는 新企業의 進入을 통해서

(60) *Ibid.*, pp. 90-93.

不完全競爭均衡을 誘導해내고 있는 데 대해서, Chamberlin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整然한 理論展開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관해서 Chamberlin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限界收入과 限界費用을 均等하게 한다는 것은 個別企業의 一般原理이며 純粹競爭 가운데에서 가장 純粹한 競爭에서도 通用된다. 그것은 結局 生産者는 利潤極大化를 追求한다는 말에 지나지 않으며, 그 自體 不完全競爭을 純粹競爭과 獨占으로부터 區別지우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⁶¹⁾ 하여튼 Chamberlin의 獨占的 競爭均衡은 <圖 9>에 있어 右下形態로 그려진 需要曲線(DD'), 平均費用曲線(PP')과 新企業의 進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되고 있다.

(2) 다음에 Robinson에 있어서의 「完全均衡의 二重條件」과 Chamberlin에 있어서의 2個의 均衡條件, 즉 (1) dd' 와 PP' 가 接하는 것, (2) DD' 가 dd' 와 PP' 가 接하는 點을 通過하는 것을 比較해 보기로 하자. Robinson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선 獨占企業(單獨企業)에 있어 「限界收入=限界費用($MR=MC$)」이 이루어지고 따라서 또 獨占的 超過利潤이 存在하고 있는 狀態에, 역시 「限界收入=限界費用」에 의해서 獨占的 超過利潤을 獲得하고 있는 多數 獨占企業들이 모여들면 獨占的 超過利潤은 消滅되어 버리고 만다(「平均收入=平均費用($AR=AC$)」)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Chamberlin의 경우에 있어서는, 他企業은 存在하지 않으며 自己企業만이 存在하고 있다고 假定했을 때의 平均收入과 平均費用이 같아지고($AR=AC$), 또 바로 그 點은 他企業과 競爭하면서 形成되는 그 企業의 平均收入이 그 企業의 平均費用과 같아지는 點이기도 하다는 것이다($AR=AC$). 이리하여 Chamberlin에 있어서의 2個의 均衡이란, 結局 「平均收入=平均費用($AR=AC$)」의 位置에서 均衡이 達成된다는 1個의 均衡條件으로 壓縮될 수가 있게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 dd' 란 「事前」을 表示하고 있는 데 대해서 DD' 는 「事後」를 表示하고 있으며, 「事前」은 結局 「事後」에 吸收되고말 宿命에 있으므로 그와 같이 말할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Robinson의 不完全競爭均衡理論과 Chamberlin의 獨占的 競爭均衡理論이 다르다고 하기 보다는 오히려 同一하다는 結論에 우리를 誘導해 준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Chamberlin의 獨占的 競爭均衡理論도 Robinson의 不完全競爭均衡理論과 꼭 같이 다음과 같이 「1 產業에 있어서의 不完全競爭均衡·獨占的 競爭均衡」에 의해서 表示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Chamberlin은 「各企業」이 同一하다고 하고 있으므로 <圖 10>에 있어서의 AC 는 모든 企業의 Marshall의 PE 曲線으로 表示된 產業에 있어서의 市場平均費用曲線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各企業의 個別平均收入曲線이 表示되고 있는데, 그것도, Robinson의 (a)의 경우와 같이, 積極的인 形態로서

(61) *Ibid.*, p. 193.



〈圖 10〉

즉 實線으로서가 아니라, 消極的인 形態로서, 즉 點線의 形態로서 表示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에 있어서도 다음과 같은 Marshall의 「數量을 媒介變數로 하는 價格決定」의 理論이 成立된다는 것도 아울러 言及해 두어야 되겠다.

$$\left. \begin{aligned} P &= P(Q) \\ K &= K(Q) \\ P(Q) &= K(Q) \end{aligned} \right\} \quad (1-2)$$

III. 寡占經濟

30. 다음에는 寡占競爭 또는 「寡占資本主義」(oligopolistic capitalism)의 構造에 관해서 考察을 해보기로 한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寡占經濟」란, Marx經濟學에서 말하고 있는 所謂 「獨占資本主義」를 指稱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靚찮을 줄 생각한다.

우리가 이 때까지 보아온 「不完全競爭」 또는 「獨占的 競爭」은 「完全競爭」과 甚大한 差異가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以上의 論述을 통해서 確認할 수가 있었다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 다만 「生産物差別化」를 통한 各 企業의 特有的 右下形態의 個別平均收入曲線이 하나 더 附加되었다는 點에 이 理論의 特有性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줄 생각한다. 지금 資本主義의 發展이 Menger가 主張하고 있는 바와 같이 「獨占→自由競爭」의 方向이 아니라 Marx가 主張하고 있는 것 같이 「自由競爭→寡占」의 方向을 더듬어 왔다고 하면 「不完全競爭=獨占的 競爭」은 「自由競爭=完全競爭」의 資本主義와 寡占資本主義의 中間位置에 있다고 할 수 있을 줄 생각한다. 즉 小資本이 集積되어서 中資本을 形成하는 發展段階가

되자 「不完全競爭均衡=獨占的競爭均衡」이 發生되게 되었다는 것이다. 「不完全競爭均衡=獨占的競爭均衡」이 支配하던 時代에 있어서는 從來 「自由競爭均衡=完全競爭均衡」의 資本主義의 時代에 있어 精巧하지 않던 生産手段과 初步의 技術으로써 기껏 同質生産物의 若干 變形된 形態의 生産物 밖에 生産하지 못했던 것이 資本이 集積되면서, 그리고 또 보다 精巧한 生産手段이 出現되고 技術進步도 進陞되었던 까닭으로 生産物의 差別化現象이 漸次的으로 나타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生産力面에 있어서의 發達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中資本이 더욱 集積되어서 또는 內部·外部金融의 힘을 빌어서 더욱 巨大化되고 그리고 또 精密한 生産手段의 生産, 高度의 技術進步가 있게 되자 寡占資本主義가 發生되었다고 할 수 있다.

31. 그러면 寡占資本主義의 特色은 어떠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前記한 바와 같이, Hilferding은 「金融資本이 支配하는 發展段階」라고 했고 Lenin, Baran·Sweezy는 이것을 「獨占資本主義」라고 稱했다. 그런데 「金融資本主義」라고 하든 또는 「獨占資本主義」라고 하든 (우리는 앞으로 이에 대한 稱號를 「寡占資本主義」라는 用語로써 統一하도록 하겠다.) 하여튼 그 特色은 「不完全競爭均衡=獨占的競爭均衡」時代에 있어 主動的 役割을 해오던 「中資本」이 「大資本」으로 成長했을 뿐만 아니라 그 「大資本」의 數도 極히 制限되게 되었으며, 그리고 또 그 數도 極히 制限되고 있는 大資本들 사이에 여러가지 形態의 「結合(combination)」의 現象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즉 集積過程을 거쳐서, 또는 內部·外部金融을 통해서 出現되었던 大資本의 集中現象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면 資本의 集中現象이 發生된 以後에 있어서의, 즉 極히 그 數가 制限되고 있는 「大資本」들 사이에 「結合」現象이 發生되었을 경우에 있어서의 價格決定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게 되는가 하는 것을 다음에 보기로 하자. 그런데 이에 관해서 言及하기 前에 「資本主義體制」라는 것에 관해서 言及해둘 必要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寡占資本主義는 그 數가 極히 制限된 「大資本」과 그들의 「結合」에 의해서 運營되는 體制라고 했지만, 그러한 立言만 가지고서는 重大한 誤謬를 誘導해낼 憂慮가 있기 때문이다. 그 數가 極히 制限되고 있는 「大資本」과 그들의 「結合」이 運營하고 있다고 우리가 規定한 寡占資本主義 下에 있어서도 「中資本」·「小資本」도 大量 存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非資本主義要素도 大量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寡占資本主義를 그 數가 極히 制限되고 있는 「大資本」과 그 「大資本들의 結合」에 의해서 運營되는 體制라고 規定한 것은 寡占資本主義의 「主要特色」을 規定했을 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言及해두어야만 하겠다. 그리하여 우리는 더욱 正確한 概念規定을 위하여 「資本主義體制」에 관해서 言及해둘 必要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資本主義體制」는 「同質性的 體制」가 아니라 「非同質性과 不均等的 體制」라고 規定해 두고자 한다. 이 問題에 關係해서 特히 Mandel이 明確한 概念規定을 해 놓았다고 생각하므로 다음에 Mandel의 이에 關한 說明을 紹介하기로 한다. Mandel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資本主義經濟는 資本主義的, 半資本主義的(semi-capitalist), 前資本主義的(pre-capitalist) 生産關係가 相互 資本主義的 交換關係(capitalist relations of exchange)에 의해서 規制되어 資本主義的 世界市場에 의해서 支配를 받는 統合的 體制이다.」⁽⁶²⁾ 「資本主義의 全體制는 生産性 格差의 段階的 構造(a hierarchical structure of different levels of productivity)로서 그리고 또 國家, 地域, 産業 및 企業部門의 不均等結合發展의 總體(the outcome of the uneven and combined development of states, regions, branches of industry and firms)로서 나타나고 超過利潤의 追求에 의해서 規定된다. 그것은 統合된 單一體를 形成하고 있다. 그러나 非同質性的 部分으로써 構成되고 있는 統合單一體(an integrated unit of non-homogeneous parts)이며 同質性的 缺如(lack of homogeneity)가 그 體制의 特色을 이루고 있다.」⁽⁶³⁾

즉 Mandel의 말을 要約하면, 資本主義體制는 大資本·中資本·小資本들이 併存하고 있는 體制이며, 또 同時에 資本主義와 非資本主義가 併存하고 있는 體制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32. 寡占經濟乃至 寡占資本主義는, 前記한 바와 같이, 그 數가 極히 制限되고 있는 大資本과 그들의 結合이, 中資本·小資本이 大量 存在하고 있으며 거기다가 또 非資本主義的 要素조차 있는 環境 밑에서, 利潤極大化를 追求하는 즉 超過利潤을 追求하는 體制라고 할 수 있다. 이 段階는 中資本·小資本들이 存在하던 「不完全競爭均衡=獨占的 競爭均衡」의 時代에 있어서 보다도 技術進歩가 顯著하게 進行되고 있는 段階라고 생각해 두기로 한다.

生産力面에서 資本主義의 發展을 크게 (1) 工場手工業(manufacture)이 支配하던 時期와, (2) 機械制大工業이 支配하는 2個의 時期로 分類하기로 하자. 그렇게 分類하면, 「自由競爭均衡=完全競爭均衡」의 資本主義가 支配하던 時期는 즉 「小資本」이 主動的 役割을 하던 時期는 주로 工場手工業이 支配하던 時期라고 할 수 있을 줄 생각한다. 이 時期에 있어서는 技術水準이 極히 低位에 있었기 때문에, 生産物差別化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에 「不完全競爭均衡=獨占的 競爭均衡」이 支配하던 時期 즉 「中資本」·「小資本」이 主動的 役割을 하고 있었던 時代는 대강 工場手工業時代와 機械制大工業時代의 中間時期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時期에 들어서서는 技術進歩가 顯著하게 進行됨으로써 生産物差別化現象도 나타났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機械制大工業이 進行된 以後 「大

(62) Mandel, *op. cit.*, pp. 48-49.

(63) *Ibid.*, p. 102.

資本」과 「大資本의 結合」이 나타났고, 또 때를 맞추어서 技術革命이 發生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時期 以後에는 顯著한 生産物差別化와 그리고 또 生産性向上에 立脚한 極小平均費用引下가 促進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을줄 생각한다.

Mandel은, 機械制大工業의 時代에 있어서는, 3次에 걸친 技術革命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前提 위에서 寡占資本主義의 4個의 主要特色을 指摘해 보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33. (1) 大資本의 有利한 힘에 의해서 大規模施設의 利益을 充分히 享受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2) 大規模施設의 德分으로 生産物差別化를 徹底하게 할 수 있게 됨으로써 그 企業의 個別平均收入曲線을 右上으로 移動시킬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3) 大規模施設의 德分으로 極小平均費用을 右下로 引下시킬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4) 大資本들이 「結合」해서 其他 資本(主로 中資本·小資本)의 그 産業에의 進入을 阻止하고, 또 「價格操作」을 함으로써 「寡占의 超過利潤」을 獲得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大資本」들이 「結合」을 形成함으로써 어떻게 「價格操作」을 하고 어떻게 進入障壁을 쌓음으로써 「寡占의 超過利潤」을 獲得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考察해보기로 한다.

34. 우선 먼저 進入障壁에 관해서 言及해 보기로 하자. J. Bain에 의하면 「進入條件」(the condition of entry)에는 다음 세 가지가 包含되고 있다는 것이다. 「容易한 進入(easy entry)이 이루어질 수 있는 狀況의 本質的 特徵은 一般的인 進入條件定立에 直接的인 端緒를 주게 된다. 容易한 進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一般的으로 3個 條件이 同時に 充足되면 되는 것이다. (1) 現存企業이 進入可能企業보다 絶對的인 費用上에 있어서의 有利한 點을 갖고 있지 않을 경우(no absolute cost advantages), (2) 現存企業이 進入可能企業보다 生産物差別化에 有利한 點을 갖고 있지 않을 경우(no product differentiation advantages), (3) 大規模施設의 利益이 通하지 않을 경우(the economies of large-scale firms are negligible), 즉 最適生産量(極小平均費用生産量)이 그 産業의 全體生産量의 微少한 一部分 밖에 안되는 경우(the output of a firm of optimal (lowest cost) scale is an insignificant fraction of total industrial output) 等이다.」⁽⁶⁴⁾

즉 Bain은 進入條件으로서 (1) 極小平均費用引下競爭에서 能力이 있고, (2) 生産物差別化競爭에서 能力이 있고, (3) 市場占有에 있어 能力이 있을 경우의 3個 條件을 들고 있다.

그러나 또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上記 3個 條件을 否定하는 條件이 進入阻止條件이 된다

(64) J.S. Bain, *Barriers to New Competition*, 1962, p. 12.

는 말도 될 수 있을 것이다. Bain은 進入阻止條件으로서 다음과 같은 條件을 擧示하고 있다. (65)

- A. 現存企業이 絶對的인 費用上의 有利한 點을 發生시킬수 있는 條件을 保有할 경우.
 - a. 特許權行使와 秘密維持에 의해서 現存企業이 生産技術을 統制할 수 있을 경우.
 - b. 現存企業들이 安價로 購買할 수 있는 生産要素(勞動力, 原料)의 市場의 不完全性이 存在할 경우.
 - c. 進入企業에 대한 生産要素供給에 있어서의 重大한 制約.
 - d. 進入企業에 대한 高金利融資條件.
- B. 現存企業이 生産物差別化에 있어서의 有利한 條件을 保有할 경우.
 - a. 現存企業의 生産物の 商標, 會社名에 대한 消費者의 長期間에 걸친 選好.
 - b. 現存企業에 의한 優秀商品考案抑制.
 - c. 現存企業에 의한 優秀生産物에 대한 契約上의 統制.
- C. 大規模施設의 利益에 의한 進入阻止.
 - a. 大規模施設生産에 의한 費用引下와 極小平均費用供給이 市場에서 決定的인 割當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
 - b. 大規模施設生産과 市場에서 決定的인 割當을 차지하고 있는 大量顧客을 確保하고 있는 경우.
 - c. 大規模施設廣告·販賣機構를 確保하고 있는 경우.

35. 以上에서 본 Bain의 進入障壁이라는 것은, 要約해서 말하면, 結局「大資本」만이 갖고 있는 有利한 條件 즉「生産物差別化能力」과「極小費用引下能力」과 그들「大資本」이「結合」하면 市場을 거의 完全하게 掌握할 수 있는「大量生産能力」이 其他「中資本」·「小資本」의 進入을 阻止할 수 있다는 그러한 말이 될 줄 안다. 즉 大資本이 갖고 있는 絶對的인 商品品質競争能力과 그리고 絶對的인 價格競争能力에다가 大資本의「結合」이라는 또 하나의 條件이 附加되어 少數의 大資本의 集團이 永續的인「寡占的 超過利潤」을 確保하자라는 그러한 企圖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大資本들의 結合」(그 形式이 어떠한)에 의해서 大資本들은 무엇을 企圖하는가 하면, 露骨的인 價格競争을 回避하는 方法 즉 團合的인「價格操作」과 外部로부터의 自由進入을 阻止하는 方法을 採擇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다음에는「大資本들의 結合」은 어떻게「價格操作」을 하고 또 어떻게 生産量도 決定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外部로부터의 進入을 阻止하려고 하는가를 Paulo Sylos-Labini의

(65) *Ibid.*, pp. 15-16.

理論에 따라서 살펴보기로 하자.

Sylos-Labini는, 우선 寡占을 「集中型寡占(concentrated oligopoly)」과 「差別化型寡占(differentiated oligopoly)」의 2개로 區分하고 있다. 「差別化型寡占」이란 「生産物の 어떠한 差別化가 存在할 경우의 寡占」을 말하고, 「集中型寡占」은 그러한 生産物差別化가 存在하지 않는 경우의 寡占을 意味한다. 그리고 또 하나 集中型和 差別化型的 두가지의 性格을 具備하고 있는 「複合型寡占(mixed oligopoly)」이라는 것도 存在하고 있다고 Sylos-Labini는 말하고 있다.⁽⁶⁶⁾

36. Sylos-Labini도 「大規模生産企業과 小規模生産企業의 不均等性(inequalities)이 市場形態의 分析에 있어 重要하다.」는 것을 前提로 하고 있다.⁽⁶⁷⁾ 즉 大資本과 中資本·小資本의 不均等的 併存을 市場形態分析의 前提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에 Sylos-Labini는 또, 「많은 産業部門에 있어서는 近代技術은 極小費用으로 生産을 組織하는 데 所要되는 極小資本을 絕對의으로도 相對的으로도 漸次 增大시키는 原因이 되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大資本의 中資本·小資本에 대한 有利性を 強調하고 있다.⁽⁶⁸⁾ 「大規模企業이 小企業·中規模企業 또는 新企業보다도, 資金調達面에 있어 貨付資本을 獲得하는데 있어 훨씬 수월하다는 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그리고 바로 이 點에 있어 競爭에 대한 障壁이 形成된다.」⁽⁶⁹⁾

그리고 Sylos-Labini는 또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産業集中過程의 基本的 特徵은 그것이 決코 無視할 수 없는 技術의 不連續性(technological discontinuities)을 發生케 한다는 것이다. 大企業만이 技術化·組織化에 있어 確實한 方法을 使用할 수 있으며, 大企業만이 確實한 規模의 經濟를 實現할 수가 있다. 그리고 小企業으로부터 大企業으로 成長하는 過程은 漸進的(gradual)이 될 수 없다. 거기에 있어서는 飛躍(jump)이 있을 뿐이며 集中이 進行됨에 따라 그 飛躍의 幅은 더욱 커진다.」⁽⁷⁰⁾ 여기서 Sylos-Labini는 大資本과 中資本·小資本의 格差가 그렇게 쉽게 메워질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에 Sylos-Labini는 또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企業規模가 달라지면 價格에의 影響도 달라지게 된다. 다만 大企業만이 價格을 決定할 수 있으며, 餘

(66) Paulo Sylos-Labini, *Oligopoly and Technical Progress*, revised edition, 1969, pp.13-14.

(67) *Ibid.*, p. 5.

(68) *Ibid.*, p. 9.

(69) *Ibid.*

(70) *Ibid.*, p. 35.

他 企業들은 그 價格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供給을 適應시키는 데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이 價格先導制라는 것이다。」⁽⁷¹⁾ 즉 大資本만이 즉, 商品品質競爭能力面에서 그리고 極小費用引下能力面에서 最大의 能力을 갖고 있는 大資本만이 價格決定者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反Marx的 理論을 Baran·Sweezy가 벌써 取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앞에서 이미 본 바가 있다.)

그런데 또 Sylos-Labini는 다음과 같은 말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小企業은 價格을 直接的으로 決定할 수는 없지만, 그들의 總生産量을 變動시킴으로써 間接的으로 (indirectly) 價格에 影響을 미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現實的인 것같이 생각된다.」⁽⁷²⁾ 즉 Sylos-Labini에 의하면, 寡占經濟 下에서 「直接的」으로 價格을 決定하는 것은 最强의 能力을 保有하고 있는 大資本이며 餘他 大資本도 이에 追從함으로써 「結合價格」이 즉 「寡占價格」이 成立되지만, 다른 한편에 中資本企業·小資本企業들도 이에 進入함으로써 그들의 總生産量의 變動에 의해서 「間接的」으로 價格을 變動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37. 그리하여 Sylos-Labini는 大資本企業이 이들 中資本企業·小資本企業들의 進入을 阻止하는 「結合價格」 즉 「寡占價格」으로서 「進入阻止價格(entry-preventing price)」과 「排除價格(elimination price)」의 2個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Sylos-Labini는 「進入阻止價格」을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다. 「만약 價格先導者(price leader)들이 어떤 型의 新企業의 進入을 阻止하려고 하면, 그들은 新企業에게 極小利潤率을 確保할 수 없는 價格을 強要하면 된다. 그 價格이 바로 進入阻止價格이 된다.」⁽⁷³⁾

지금 r 을 利潤率, Px 를 總收入, k 를 總固定費用, 그리고 vx 를 總可變費用이라고 한다면,

$$r = \frac{Px - k - vx}{k + vx}$$

가 成立될 수 있게 된다. 만약 極小利潤率을 r_m 이라고 하고, 그 企業의 極小利潤率에 對應하는 價格을 P_m 이라고 하면

$$P_mx = r_mk + r_mv_x + k + vx$$

$$P_m = \left(\frac{k}{x} + v \right) (1 + r_m) \quad (2)$$

이 成立되게 된다. 이럴 때 「進入阻止價格」 P_c 는 新企業의 P_m 보다 낮다. 그리고 만약 價格先導者들이 現存企業을 驅逐하려고 할 때에는 驅逐하려고 하는 企業의 可變費用 以下の 水準으로 價格을 決定하지 않으면 안된다. 企業은, 비록 價格이 下落되어서 固定費用을 補償

(71) *Ibid.*, p. 39.

(72) *Ibid.*

(73) *Ibid.*, p. 40.

할 수 없을 동안에도 한동안 生存할 수가 있으나, 그러나 價格이 可變費用 以下로 下落될 때에는 企業은 極히 短期間 밖에 生存할 수 없게 된다. 이리하여 「排除價格」은 市場으로부터 驅逐되는 企業의 可變費用보다 低位에 있게 된다. 嚴密하게 말하면 이것은 「短期排除價格」이 된다. 이에 대해서 「長期排除價格」은 「進入阻止價格」이 된다. (74)

38. 다음에는 Sylos-Labini가 展開하고 있는 「集中型寡占 下에 있어서의 價格·生産量決定」을 보기로 하자.

여기 다음과 같은 産業構造가 있다고 假定을 해보기로 하자.

企業의 規模와 數	各 企業의 生産量	各 그룹의 生産量
小企業 20	100	2,000
中企業 2	1,000	2,000
大企業 1	8,000	8,000
12,000(市場의 規模)		

〈表 1〉 大企業·中企業·小企業의 費用과 利潤

生産量	固 定 費		平 均 直接費	總 費用	價 格	總 收入	利 潤		利潤率 (%)
	總 額	平 均					總 額	1單位當	
x	k	k/x	v	$T=k+vx$	P	Px	$G=Px-T$	$g=G/x$	$s=G/T$
100	100	1	17.5	1,850	20	2,000	150	1.5	8.1
					19.5	1,950	100	1	5.4
					19.4	1,940	90	0.9	5.0
1,000	2,000	2	16	18,000	20	20,000	2,000	2	11.1
					19.5	19,500	1,500	1.5	8.3
					19.4	19,400	1,400	1.4	7.8
					19.2	19,200	1,200	1.2	6.7
8,000	24,000	3	14	136,000	20	160,000	24,000	3	17.6
					19.5	156,000	20,000	2.5	14.7
					19.4	155,000	19,200	2.4	14.1
					19.2	153,000	17,600	2.2	12.9
6,385	24,000	3.76	14	113,400	18.8	120,000	6,640	1.04	5.8

5%의 極小利潤率에 對應하는 價格 P_m 은 方程式 (2)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된다.

企 業	P_m
小企業	19.4
中企業	18.9
大企業	17.8

(74) *Ibid.*

「進入阻止價格」 P_c 는 各各 P_m 의 바로 밑에 있는 價格이 된다. 그리고 「排除價格」 P_e 는 各 企業의 可變費用의 바로 밑에 있는 價格이 된다. 그리고 各 價格에 대한 販賣量은 다음과 같다고 한다.

$$\begin{array}{r}
 \text{價格} \times \text{販賣量} = \text{販賣額} \\
 20.0 \times 12,000 \\
 19.5 \times 12,300 \\
 19.2 \times 12,500 \\
 18.8 \times 12,770 \\
 13.3 \times 18,000 \\
 12.0 \times 20,000
 \end{array}
 \left. \vphantom{\begin{array}{l} \\ \\ \\ \\ \\ \\ \end{array}} \right\} = 240,000$$

이러한 與件 위에서 價格과 生産量은 各各 어떻게 決定되는가 하는 것을 考察해 보기로 하자.

A. 生産量의 變動

a. 大企業은 進入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新大企業이 進入하면 總販賣量은 20,000으로 增大되고 價格은 12로 下落되는데 그 價格은 大企業의 極小利潤率에 對應하는 價格(17.8)보다도, 그리고 그 可變費用(14)보다도 낮게 되기 때문이다.

b. 新中企業의 進入도 不可能하다. 왜냐하면 中企業의 進入에 의해서 總販賣量은 13,000으로 增大되고 價格은 18.4로 下落하게 되는데 그것은 中企業의 P_m (18.9)보다 낮다.

c. 그런데 小企業은 3個까지 進入할 수가 있다. 그들의 進入에 의해서 總販賣量은 12,300으로 增大되고 價格은 19.5까지 下落되는데, 그것은 小企業의 極小利潤率에 對應하는 價格(19.4)을 上回하고 있다. 이리하여 「均衡價格」은 19.5가 된다고 Sylos-Labini는 說明하고 있다.

B. 價格의 變動: 假定에 의하면 大企業만이 價格決定을 할 수 있다고 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大企業이라고 하더라도 무턱대고 價格引上을 하는 것은 販賣量의 減少를 가져오므로 有利하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 大企業이 「攻撃의 價格政策(an aggressive price policy)」를 採擇하면 즉 中企業·小企業을 逐出하려는 價格政策을 採擇할 때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기로 하자.

a. 小企業을 排除하기 위해서 大企業이 小企業의 可變費用 以下로 이룰테면 17.4로 價格을 決定하면 그것은 곧 大企業의 利潤을 引下시키는 結果를 가져오게 할 것이다. 小企業이 排除됨으로써 대신 大企業이 進入하면 生産量은 18,000이 되고 價格은 13.3으로 下落함으

로써 大企業의 P_m 보다도, v 보다도 더 낮게 된다. 結局 小企業을 排除하는 「攻擊的 價格政策」은 大企業에게 有利하지 않다는 말이 된다.

b. 大企業이 中企業·小企業을 排除하기 위해서는 中企業·小企業의 可變費用 以下の 15.9로 價格을 決定하면 된다. 그런데 15.9라는 價格은 大企業의 可變費用은 상당히 上回하고 있지만 平均費用을 補償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中企業·小企業이 排除된 空白 4,000을 現存大企業과 同一 規模의 大規模企業의 進入으로써 充足시키려고 할 때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때에는 2個의 大企業이 各各 6,385씩을 生産하므로 總販賣量은 12,770이 됨으로써 18.8로 價格을 決定하면 된다. 그런데 이 때에는 平均固定費用이 3으로부터 3.76으로 上昇하고 利潤率은 2.5로부터 1.04로 下落하게 될 것이다. 結局 「均衡價格」은 19.5가 되고 이 價格에 있어서의 產業構造는 다음과 같이 된다는 것이다.

企業	生産量
23小	2,300
2中	2,000
1大	8,000
	12,000

39. 그런데 또 Sylos-Labini는 다음과 같은 또 하나의 例를 提示하고 있다. 이번의 例 즉 第2例는 前例 즉 第1例에 있어서의 企業數를 各各 2倍로 增加시키고 있는 例이다. 물론 거기 따라서 市場構造도 絶對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企業	生産量
40小	4,000
4中	4,000
2大	16,000
	24,000

價格 × 販賣量	= 販賣額
20.0 × 24,000	} = 480,000
19.4 × 24,700	
19.3 × 24,800	
19.2 × 25,000	
18.8 × 25,530	

A. 生産量の變動

a. 大企業의 進入은 不可能하다. 왜냐하면 價格이 大企業에 대한 「進入阻止價格」(17.7) 以下로 下落되기 때문이다.

b. 中企業 1個가 進入할 수 있다. 販賣量이 25,000으로 增大됨으로써 價格은 19.2로 下落되지만, 그것은 小企業에 대한 「進入阻止價格」(19.3) 以下가 된다. 小企業의 進入은 不可能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長期에 걸쳐서는 現存小企業도 排除되고 만다. 그리하여 그 空白을 4個의 中企業이 占據하게 되고 產業構造는 다음과 같이 된다.

企業	生産量
0小	—
4+1+4=9中	9,000
2大	<u>16,000</u>
	25,000

이 때의 「均衡價格」은 19.2가 된다.

c. 價格 20, 販賣量 24,000의 始發點에 있어서는 7個의 小企業의 進入이 可能하게 된다. 販賣量은 24,700으로 增大되고 價格은 19.4로 下落된다.

企業	生産量
47小	4,700
4中	4,000
2大	<u>16,000</u>
	24,700

그리하여 2個의 「均衡價格」이 成立된다는 것이 判明되었다고 할 수 있다.

B. 價格의 變動: 이번에는 2大企業이 「結合」行動을 함으로써 價格決定을 한다고 假定을 해보기로 하자.

a. 만약 大企業이 小企業을 排除하려 한다면, 最初에는 17.4로, 다음에는 19.3으로 價格을 維持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때에는 24,800을 販賣할 수 있으며, 그 가운데에서 16,000을 2個의 大企業이, 4,000은 4個의 中企業이, 그리고 나머지 4,800은 2大企業이 이 目的을 위해서 設置한 1施設에 의해서 各各 生産하게 된다. 그리고 3個의 各 施設이 그의 最大能力 8,000이 아니라 6,934($(16,000 + 4,800) \div 3 = 6,934$)를 生産한다고 하면 價格은 19.3이 되고 各 施設은 12,825의 利潤을 獲得할 수 있게 된다. 2大企業은 合計해서 $12,825 \times 3 = 38,475$ 의 利潤을 獲得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이 利潤은 「均衡價格」 19.2에 있어서의 2大企業이 2個施設로부터 獲得하는 利潤의 合計 $17,600 \times 2 = 35,200$ 보다도, 그리

고 「均衡價格」 19.4에 있어서의 2大企業이 獲得하는 利潤의 合計 $19,200 \times 2 = 38,400$ 보다도 더 크다. 그러나 이 경우에 있어서는 그 差異가 그다지 크지 않고 鬭爭費用(2大企業이 價格을 17.4로 維持하는 동안에 喪失되는 利潤量)을 補償할 만큼 크지도 못하므로 大企業이 小企業을 排除하는 「攻撃的 價格政策」을 採擇하지 않는다.

b. 中企業·小企業을 排除하기 위해서 어떤 期間 中企業의 可變費用 以下인 15.9를 維持하다가 18.8로 引上하면 25,530의 販賣量을 確保할 수 있게 된다. 이에 對應해서 3個施設이 24,000을 生産하면 價格은 20이 된다. 그러면 또 中企業과 小企業이 市場에 再次 進入할 機會를 얻게 된다.

(1) 1個의 中企業이 進入할 수 있게 된다. 生産量은 25,000으로 增大되고 價格은 19.2로 下落하게 된다. 그것은 前記한 바 있는 「均衡價格」=19.2인 경우와 같아지게 되는데, 다만 産業構造가 다음과 같이 變하게 된다는 것이다.

企業	生産量
0小	—
1中	1,000
2大(3施設)	<u>24,000</u>
	25,000

(2) 中企業 대신 7個의 小企業이 進入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에는 生産量이 24,700으로 增大되고 價格은 19.4가 된다. 그런데 이것은 또 前記한 「均衡價格」=19.4의 경우와 같아지게 되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는 産業構造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企業	生産量
7小	700
0中	—
2大(3施設)	<u>24,000</u>
	24,7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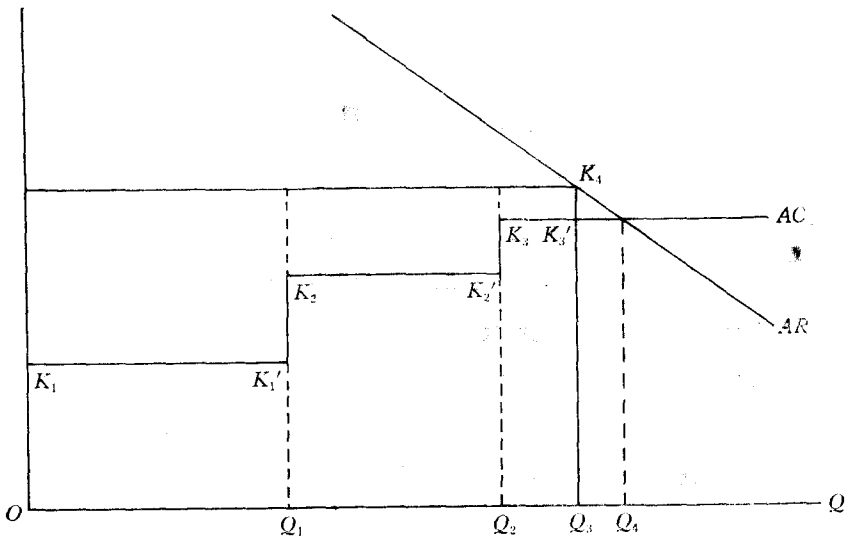
그런데 以上の 경우, 價格이 19.2일 때에는 各 大企業은 各各 17.6의 利潤을 獲得할 수 있게 되므로 2大企業의 利潤의 合計는 35,200이 되는 데 대해서, 價格이 19.4일 때에는 各 大企業은 各各 19,200의 利潤을 獲得할 수 있게 되므로 2大企業의 利潤의 合計는 38,400이 된다는 理論이 誘導될 법도 한데, 2大企業이 「結合」行動을 하고 있으므로, 거기다가 또 2施設이 아니라 3施設을 갖고 있으므로, 2大企業의 利潤의 合計는 各 大企業이 獲得할 수 있는 利潤의 2배가 아니라 3배가 된다고 하고 있다.

$$17,600 \times 3 = 52,800$$

$$19,200 \times 3 = 57,600$$

40. 이리하여 Sylos-Labini는 第1例와 第2例를 比較하면서 다음과 같은 結論을 誘導해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其他事情이 同一하다고 할 때에는, 絶對적으로 큰 市場은 相違한 均衡狀態를 發生하게 하고, 小企業과 中企業을 排除하기 위한 大企業側의 攻撃的 價格政策의 採擇을 더욱 促進시킬 展望을 增大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市場이 커지면 커질수록 企業의 平均規模는 더욱 더 커지고 均衡價格은 점점 더 下落되는 傾向을 나타내게 된다.」⁽⁷⁵⁾ 왜냐하면 第1例와 第2例를 比較해보면, 大企業이 「結合」할 경우, 市場이 擴大되면 大企業이 施設投資를 하게 되는 것이 確實하고, 다음에 中企業 아니면 小企業이 消滅되는 現象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더 나아가서 Sylos-Labini의 理論을 根據로 해서 「1産業에 있어서의 寡占價格決定」을 생각해 보기로 하자. <圖 11>에서 AR은 그 産業의 平均收入曲線을, AC는 Marshall의 PE曲線으로 表示된 産業의 平均費用曲線을 表示하고 있다고 한다.



<圖 11>

그런데 여기서 寡占經濟가 「自由競爭均衡=完全競爭均衡」의 경우와 그리고 또 「不完全競爭均衡=獨占의 競爭均衡」의 경우와 決定的으로 判異한 差異點으로서 寡占經濟에 있어서는 産業의 平均費用曲線이 AR과 交叉되는 데에서 「寡占價格」과 「生産量」이 決定되지 않을고, 즉 Q_2K_3 가 「寡占價格」이 되지 않으며 그리고 또 OQ_4 가 「決定生産量」이 되지 않을고, Q_3K_4

(75) *Ibid.*, pp. 49-50.

가 「寡占價格」이 되고 Q_3 가 「決定生産量」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K_3/K_4 는 무엇을意味하고 있을까. 우리는 K_3/K_4 는 「寡占的 超過利潤」을 表示하고 있다는 것을主張하고자한다. 「寡占經濟」와 「自由競爭均衡=完全競爭均衡」·「不完全競爭均衡=獨占的 競爭均衡」의 決定的 差異點은, 前者의 경우에 있어서는, 「價格操作」과 「進入阻止政策」에 의해서 「寡占的 超過利潤」이 發生되는 데 대해서, 後者의 경우에 있어서는, 自由進入이 可能하고 「價格操作」이 不可能하므로 따라서 「寡占的 超過利潤」이 發生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自由競爭均衡=完全競爭均衡」·「不完全競爭均衡=獨占的 競爭均衡」에 있어서는 自由進入이 可能하므로 限界企業은 正常利潤(極小利潤) 以上の 利潤이 確保되지 않는 데 대해서, 「寡占經濟」에 있어서는 「大企業의 結合」에 의해서 「價格操作」·「進入阻止政策」의 施行이 可能하므로 限界企業도 正常利潤(極小利潤) 以上の 「寡占的 超過利潤」을 獲得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을 Sylos-Labini의 理論에 의해서 表現해 본다면 「進入阻止價格」속에는 正常利潤(極小利潤)을 上回하는 「寡占的 超過利潤」이 包含되고 있다는 말이 될 줄 안다. <圖 11>에 있어서의 「寡占價格」 Q_3/K_4 는 所謂 「進入阻止價格」과 一致된다고 할 수 있다.

41. 그러므로 寡占的 價格決定理論은 「自由競爭均衡=完全競爭均衡」·「不完全競爭均衡=獨占的 競爭均衡」에 있어서의 價格決定理論과 그 趣意를 달리해야만 된다고 생각한다. 寡占經濟 下에서는 「大資本들의 結合」에 의한 「結合價格」, 즉 「價格操作」이 施行되므로 「自由競爭均衡=完全競爭均衡」·「不完全競爭均衡=獨占的 競爭均衡」에 있어 通用될 수 있는 Marshall 式의 $P=P(Q)$ 가 成立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寡占經濟의 경우, 價格은 最高의 1人, 즉 價格先道者에 의해서 決定되므로

$$Q=Q(P)$$

가 成立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다음에 寡占價格에 의해서 決定된 生産量은 그 產業에 있어서의 限界企業의 位置를 確定시켜주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K=K(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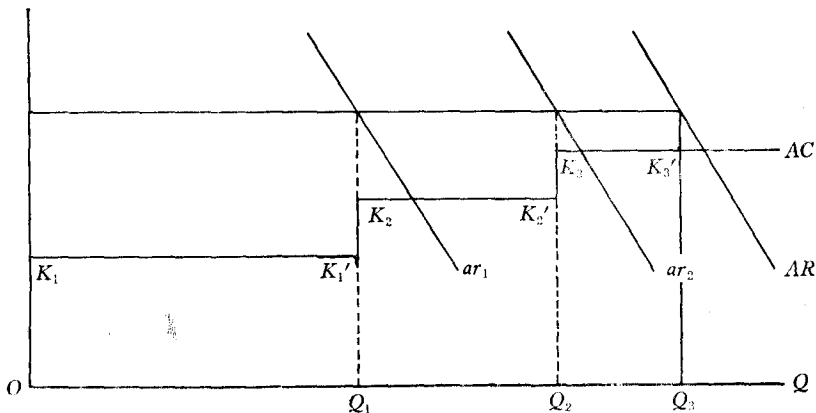
가 成立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限界企業의 平均費用(正常利潤을 包含함)은 또 寡占價格보다 「寡占的 超過利潤」만큼 작아야 될 것이다. 그리하여 結局 다음과 같은 相互關係가 成立될 수 있게 될 줄 안다.

$$\left. \begin{aligned} Q &= Q(P) \\ K &= K(Q) \\ P &> K \end{aligned} \right\} \quad (3)$$

여기서 우리가 注意해야 할 것은 「寡占經濟」에 있어서는, (1) 「自由競爭均衡=完全競爭均衡」·「不完全競爭均衡=獨占的競爭均衡」에 있어서와 같이 「均衡理論」이 成立되지를 않고 「不均衡理論」이 成立된다는 것이다. 즉 寡占經濟에 있어서는 「寡占的競爭均衡」이 成立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Sylos-Labini가 말하고 있는 「均衡價格」이라는 用語는, 嚴密히 따지면, 이 경우에 使用되어서는 안되는 概念이라고 생각한다. (2) 다음에는 「寡占價格決定」의 類型이 物物交換 $W-W'$ 와 單純商品生産 $W-G-W'$ 에 있어 成立되는 「價格을 媒介變數로 하는 價格決定」($D=D(P)$, $S=S(P)$, $D(P)=S(P)$)의 類型도 아니고, 그리고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W < \frac{P}{A} \dots P \dots W'-G'$ 에 있어 成立되는 「數量을 媒介變數로 하는 價格決定」($P=P(Q)$, $K=K(Q)$, $P(Q)=K(Q)$)의 類型도 아니며, 이 경우에 있어서는 媒介變數가 存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42. Sylos-Labini는 「差別化型寡占에 있어서의 價格決定」에 관해서는 明快한 理論을 展開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경우에 있어서도 「集中型寡占」에 있어서와 같은 理論이 展開될 수 있을 줄 안다. 但 이 경우에 있어서는 前者의 경우와는 달리 各 企業의 個別平均收入曲線이 消極的인 形態로서 즉 點線形態로서가 아니라 積極的인 形態로서 즉 實線形態로서 明示的으로 表示되어야 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理由는 「差別化型寡占」에 있어서는 大資本의 技術特化가 特히 生産物差別化 즉 差別化된 需要曲線으로 나타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圖 12〉).



〈圖 12〉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企圖에 대해서 差別化된 生産物에 대한 個別需要曲線을 어떻게 橫

으로 集計할 수 있느냐 하는 反問이 나올 수 있을 줄 안다. 즉 GM自動車에 대한 需要曲線과 포드自動車에 대한 需要曲線を 어떻게 集計할 수 있느냐 하는 疑問이 나올 수 있을 줄 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不完全競爭均衡=獨占의 競爭均衡」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消費者는 差別化된 生産物을 同質生産物로 換算해서 比較할 수 있는 能力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이 問題를 解決할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마치 生産者가 異質勞動을 同質勞動(抽象的 人間勞動)으로 換算함으로써 比較할 수 있는 能力을 갖고 있는 것과 꼭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 어떠한 企業이 新技術採用을 하면 極小平均費用引下 以外에 個別需要曲線(個別平均收入曲線)을 右上으로 移動시킴으로써 餘他 企業의 割當을 侵犯하고, 技術革新을 成就하지 못한 企業은 반대로 그 顧客을 奪取당하게 된다는 것도 말할 것 없다. 그리고 이 경우 成立될 수 있는 Sweezy式 屈折需要曲線은 「事後的」으로는 結局 ar_1 , ar_2 와 같은 形態가 된다는 것도 아울러 言及해 두어야 하겠다.

結局 이 경우에도

$$\left. \begin{array}{l} Q=Q(P) \\ K=K(Q) \\ P>Q \end{array} \right\} \quad (3-1)$$

의 「不均衡理論」이 成立된다고 할 수 있다.

43. Schumpeter는, 「獨占」이라는 用語를 實質的으로 우리가 말하는 「寡占經濟」를 意味하는 것으로 使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美國에 있어서는 獨占은 大規模企業과 同義語가 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⁷⁶⁾ 우리가 이미 言及한 바 있는 것 같이 (425), Schumpeter에 의하면, 「費用의 法則」이 支配하며 超過利潤 즉 「企業者利潤」이 存在하지 않는 「循環」과 「新生産方法導入」에 의해서 「企業者利潤」 즉 超過利潤을 發生시키는 「發展」은 서로 交替된다는 것인데, 우리는 이러한 「循環→發展→循環」의 過程은 Marshall의 「長期→短期→長期」의 過程과 同一하다고 指摘한 일이 있다(428). 그런데 Schumpeter는, 『資本主義·社會主義·民主主義』에 있어서는, 이 過程을 또 「完全競爭→獨占→完全競爭」의 過程으로서도 規定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循環=長期=完全競爭」, 「發展=短期=獨占」이라는 關係가, Schumpeter에 있어, 成立된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觀點 위에 立脚하지 않고서는 다음의 Schumpeter의 말은 理解하기 困難하게 될 것이다. 「短期에 있어서는 眞正한 獨占의 狀況乃至 獨占到 가까운 狀況이 存

(76) J. Schumpeter,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p. 100.

在할 경우가 굉장히 많다.」⁽⁷⁷⁾ 「新生産方法 및 新商品導入은, 그 出發點부터, 完全競爭과 兩立되지 않는다.」⁽⁷⁸⁾ 「純粹한 長期的 獨占의 경우는 稀少한 現象이다.」⁽⁷⁹⁾

그런데 우리는 또 『經濟發展의 理論』과 『資本主義·社會主義·民主主義』 사이에 니앙스의 差異 또는 變化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즉 『經濟發展의 理論』에 있어서는 「循環→發展→循環」의 單純한 循環만이 있는 데 대해서, 『資本主義·社會主義·民主主義』에 있어서는 發展段階가 介入되고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책에서 Schumpeter는 資本主義의 發展을 크게 2段階로 즉 「完全競爭資本主義(capitalism of perfect competition)」와 「大企業資本主義(big-business capitalism)」로 區分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⁸⁰⁾ 이렇게 보면 『經濟發展의 理論』에 있어 展開된 「循環→發展→循環」의 理論은 Schumpeter가 「完全競爭資本主義」를 想定해서 展開한 理論인 데 대해서, 「完全競爭→獨占→完全競爭」의 理論은 「大企業資本主義」를 想定하고 展開한 理論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完全競爭→獨占→完全競爭」은 成立될 수 없고 「完全競爭→獨占」만이 成立되어야 한다는 말이 될 줄 안다. 이러한 觀點을 『經濟發展의 理論』에 投影시켜 보면 「循環→發展→循環」이 成立될 수가 없고 다만 「循環→發展」만이 成立되어야 하며 「發展→循環」은 成立될 수 없다는 말이 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新結合遂行」의 理論을 展開한 Schumpeter에게는 「企業者利潤」이 發生되지 않는 「完全競爭資本主義」보다 「企業者利潤」 즉 超過利潤을 發生시키는 「大企業資本主義」가 좋았으리라는 것은 더 說明할 必要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IV. 寡占經濟와 케인즈經濟學

44. 以上 우리는 寡占經濟 또는 寡占資本主義下에 있어서의 價格決定을 考察했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到達한 結論은 寡占價格決定理論은 不均衡理論이 된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이러한 理論의 觀點에 立脚해서 다음에는 寡占經濟에 있어서는 Keynes의 有效需要의 原理가 成立될 수 없다는 것을 論證할 心算이다.

먼저 우리는 Keynes의 有效需要의 原理가 Marshall의 短期均衡理論으로부터 誘導된 經過부터 밝혀 두기로 하자.

完全競爭下에 있어서의 資本主義的 絕對價格決定理論인 Marshall의 短期均衡理論은 方程

(77) *Ibid.*, p. 102.

(78) *Ibid.*, p. 105.

(79) *Ibid.*, p.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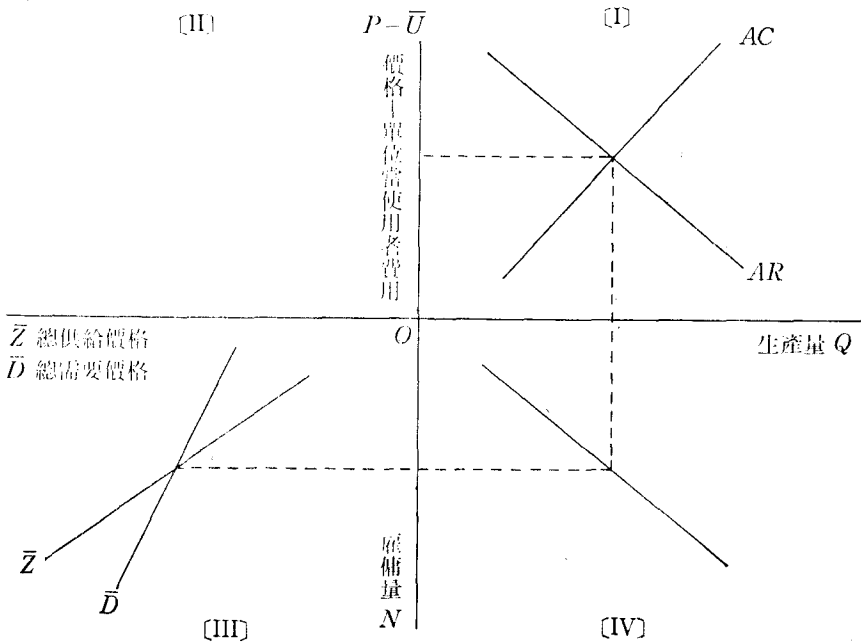
(80) *Ibid.*, p. 107.

式(1)에 의해서 表示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은 <圖 13>의 第1象限에 의해서 表示될 수 있다. 但, 縱軸은 價格에서 單位當「使用者費用」 \bar{U} 를 控除한 $P-\bar{U}$ 를 表示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第4象限의 曲線은 短期生産量과 雇傭量의 關係를 表示하고 있으며, 第3象限은 1産業에 있어서의「總供給價格」 \bar{Z} 와「總需要價格」 \bar{D} 를 表示하고 있다고 한다. 但,

$$\text{總供給價格} = (\text{供給價格} - \text{單位當 使用者費用}) \times \text{生産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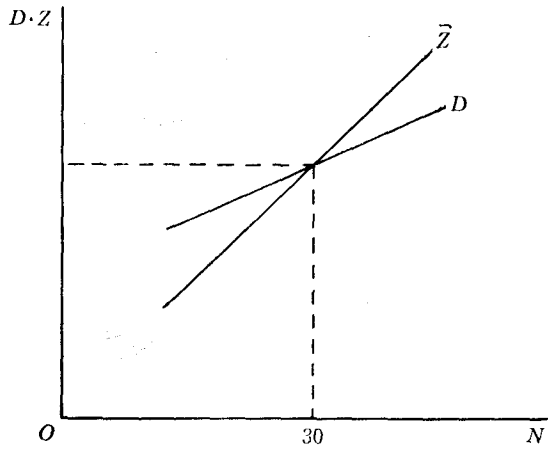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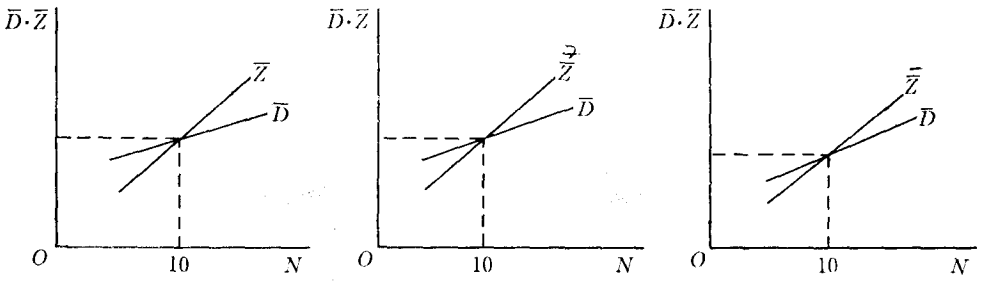
$$\text{總需要價格} = (\text{需要價格} - \text{單位當 使用者費用}) \times \text{生産量}$$

이 成立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總供給價格」 \bar{Z} 와「總需要價格」 \bar{D} 은「數量을 媒介變數로 하는 價格決定」理論, 즉 Marshall의 資本主義的 絕對價格決定理論으로부터만 誘導될 수 있다는 極히 重要的 事項을 銘心해 주기를 바란다. 따라서「總供給價格」 \bar{Z} , 「總需要價格」 \bar{D} 도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W < \frac{P}{A} \dots P \dots W' - G'$ 에 있어 通用될 수 있는 權利를 獲得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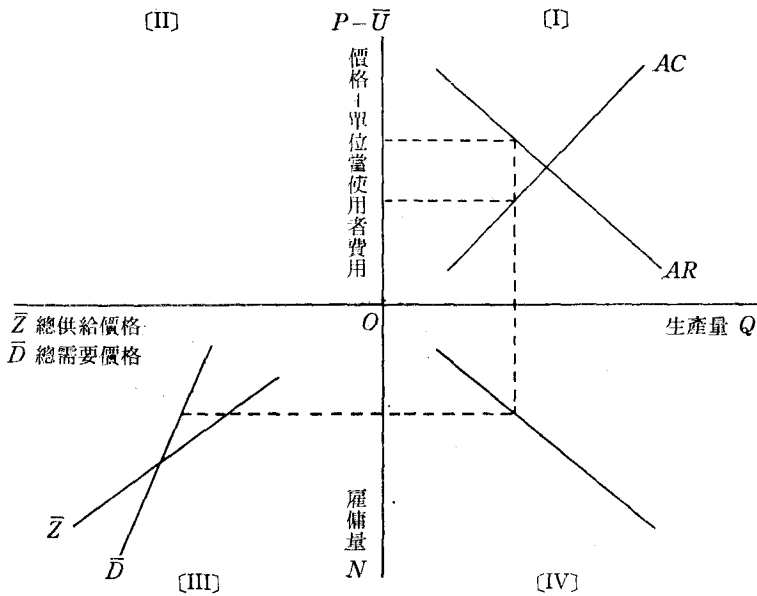


<圖 13>

다음에는 1産業에 있어 成立되는「總供給價格」 \bar{Z} 와「總需要價格」 \bar{D} 을 總體的으로 集計하면 Keynes에 있어서의「總供給價格」 Z 와「總需要價格」 D 가 誘導될 수 있게 될 것이다 (<圖 14>). 이리하여 Keynes의 有效需要의 理論($D=f(N)$, $Z=\phi(N)$, $f(N)=\phi(N)$)은 Marshall의 完全競爭 下에 있어서의 資本主義的 絕對價格決定理論($P=P(Q)$, $K=K(Q)$,



<圖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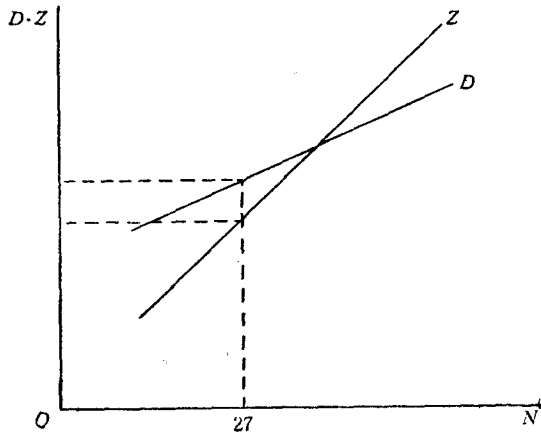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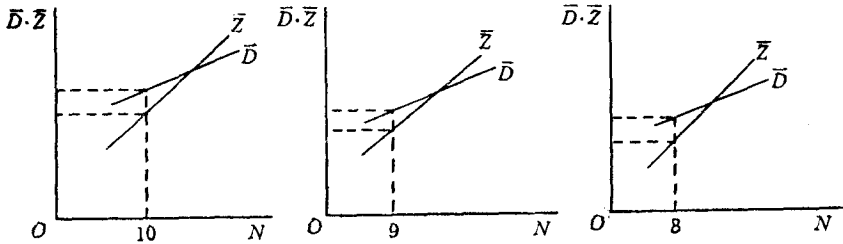


<圖 15>

$P(Q)=K(Q)$ 의 매크로版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또 Keynes의 有效需要의 理論도 完全競爭 下에 있어서의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W < \frac{P}{A} \dots P \dots W' - G'$ 에 있어서만 通用될 수 있다는 말도 될 것이다.

45. 다음에 寡占價格決定理論($Q=Q(P)$, $K=K(Q)$, $P>K$)의 $Q=Q(P)$ 는 $P=P(Q)$ 로서 代置될 수 있으므로, 그것은 <圖 15>와 같이 表示될 수가 있을 것이다. 이 경우 한가지 注意해야 할 것은 AR 과 AC 의 交叉點에서 均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均衡生産量에 未達하는 生産量에서 「不均衡」의 均衡이 成立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에 있어 各 産業에서 成立되는 不均衡生産量과 그에 對應하는 雇傭量과 「總供給價格」, 「總需要價格」을 總體的으로 集計하면 다음과 같은 關係가 成立되게 된다는 것이다(<圖 16>).

$$\left. \begin{aligned} D=f(N) \\ Z=\phi(N) \\ f(N)>\phi(N) \end{aligned} \right\} \quad (4)$$



<圖 16>

이것이 意味하는 것은 寡占經濟에 있어서는 恒常的 過剩生産이 成立된다는 것이다. 換言하면 寡占經濟에 있어서는 Keynes의 有效需要의 理論이 成立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限界企業에 正常利潤을 上回하는 永久的인 「寡占的 超過利潤」이 包含되고 있다는 것이 結局 Keynes의 有效需要의 原理를 寡占經濟에 있어 成立시키지 못하게 하는 要因이 되고 있다는 말도 될 것이다.